

기 정 서

주소: 서울 종로구 창신3동 13-65호 1/2  
성명: 김 명 기  
생년월일: 58. 9. 23 나이: 29세

존경 하시는 감사님!

상기인은 창신3동 재개발지구내 세입자로서 평소 주민들의 경조사에 바쁘게 참여하며 주민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친하고, 어려움들을 양심서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또한 매월이전 인적 및이나 동네문턱의 지지보좌 도우시기 및 청소를 하여도 두자녀의 찬사라도 받았던 안된 충실하고 자상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87. 5. 24 세입자주 매각회의후 초어난 세입자들이 심정적 충격을 위한 평화적인 행진도중 발생한 전경들과의 일사적인 충돌로 인하여 경찰의 연행으로 구속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어, 저러기만한 세입자주민들의 호감을 전광대, 만광해 떨어놓아, 노주민들의 걱정과 애타는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 하시는 감사님!

상기인의 전차 크리는 당분간 신경성 질환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를 이롭게 가기가 힘들고 고등소학교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처입니다.

그리고 연행되어 구속상태에 이르게된 그날은 방치국가에서 살아남은이 부활적으로 인정하나 불명확한 것은 상기인의 행동은 일사적이고 우발적이었음을 저러 세입자 노 주민의 이름으로 밝혀드립니다.

저러는 감사님!

결 만능의 사회구조속에서 소외받고 천대 받듯 저러 가진것 많은 세입자주민이 전박하고 가련한 처지를 말대글사님, 한사님(88)에 세입자사무실(전박)에서 재개발 조립 사무실까지 평화적인 행진을 하면서 충성을 한다는 것이 환관적인 감정이 있거나 일사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있었이것입니다.

또한 <sup>저러는</sup> 재개발과 관련된 조립이나 시공회사등 유관기관과 대화나 협상을 전경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리관인이었는것으로 확신하도록 좋은 결심이 있을것으로 사려드립니다.

끝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상기인디 어린두 딸이 엄마(상기인어처)한테 "엄마, 아바 어디가서 다직 안오셔?" 하고 아바를 찾으면 업마는 대답을 못하고 한달은 눈물을 흘릴수밖에 없는 엄마의 얼굴에 눈물을 거울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찾아와 주길 저러 세입자 일동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 세입자 일동 연명부 1부  
87. 6. 1

종로구 창신3동 1. 2 지구 세입자 일동 총합

첨부: 종로구 창신3동 1. 2 지구 세입자 연명부 1부

"진정서"

환경 지우는 관계 기관장님 !

종로구 창신 3동 재개발 철거민 27세대 136명은 억울한 과 통분을 금치 못하고 감히 진정 합니다.

우리들의 억울한과 통분은 다름이 아니오라 1987년 8월 29일 우중감계철거를 당하고 나서 우리들은 주민총회를 통하여 재개발 사업지구를 사업지축의 간극한 요청에 따라 떠나기도 권정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빈곤하여 이사값도 없고 거둬지는 철거에 위협속에 하루의 닳뜰판이도 나가지 못했었기때문에 우리의 경제사정은 참으로 밝이 아니었습니다. 닳뜰판이 정부와 조합측은 방한칸의 입주권과 생계대책비 라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어 우리들은 양자중의 하나를 선택하기위하여 고심을했고 곧 주민회의를 열어 이문제를 심각하게 논의 하였었습니다 장시간의 토론끝에 방한칸의 분양권은 우리 현실에 너무도 안맞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방한칸의 분양권은 한세대용 아파트 27평형의 아파트에 세입자 3세대를 준다는것 이기때문에, 사실상 27평형 아파트는 방세개에 부엌 하나 응접실, 욕탕 하나로 되있고 방크기는 전부크고 작고 하여 세입자 세분이 나눈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았고 조합측도 공공연히 분양권을 팔라는뜻을 비취 가난한 영세세입자들을 딱지장사로 전락 시키려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여 정부의 애당초뜻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다는데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또한가게 불가한 사유는 분양을 받게되면 세입자 한가구당 약 8평정도의 아파트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주어지는데 이것은 분양가 약 120여만원을 평당 내야 하기때문에 세입자들이에게는 약 1000, 만원 정도의 선정을 의식에 시공시기에 삼복 세이신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상 무익와는 너무도 먼곳의 이야기라 판단 하였기에 딱지를 끊면 얼마간의 이익이 생계대책비를 받는것 보다는 생기지만 우리의 순수성을 증명 하고픈 입법에 분양권을 거부 하고 생계대책비만을 받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 조합측은 기만하기 시작 하였던 것입니다.

1987년 우중감계 철거를 8월 29일 당하면서 세입자들의 집행부진의 일부가 경찰에 강제 언행당하면서 집행부의 지도 미비와 잡혀간사람을 못잊어하는 순수한 가난한 세입자들을 위협하고 속이여 거의전원에게 분양권 신청용 서류를 해오라 하며 반일 이틀 이행지 않을시 정부에서 약속한 영세민 생계 보조금 ( 이주대책비 ) 을 주지않겠다 하며 분양권 신청용서류를 해오라하여 힘없는 세입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그들이 원하는 모든 서류를 다 채다 주었습니다.

이제 8개월이 지난지금 구청이내 이웃에서 입주권을 받은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상 모든서류가 입주권 ( 분양권 ) 을 받은것으로 되어있어 우리들은 속앓음을 느끼며 그들의 속임수에 분함을 어찌할수 없어 이를 시정해주기를 바라며 감히 진정하오니 가난한 사람들의 순수함과 결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분양권을 구강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분양권을 받았다는것은 너무도 억울한일이며 그에대한 손익을 논하기전에 약작같이 힘없는 이들을 마구 속이려는 그들의 처사가 너무도 억울하고 한이됩니다.

부디 공정한 관계 기관장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원을 풀어 공명정대한 이사회에서 진정보람을 갖고 느끼며 살수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1988년 5월 16일 창신 3동 세입자 일동 .

살인적 강제철거를 규탄한다

고 이석규 민주노동 열사의 슬픔과 분노로 보내야 했던 창신동 세입자 들은 8월 29일 오전 7시 30분 사복경찰, 전경, 백골단, 구청공무원, 철거강제동 800여명이 우의를 착용하고 동원되어 자행된 폭력을 동반한 살인적 강제 철거에 다 시한번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우리들의 투쟁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날의 철거는 지역사회에 밝은 방법들을 앞세워 요소 요소의 골목을 전경들이 차단하고 장대비가 내리쬐는 우중에도 아랑곳 없이 본격적인 작전개시와 동시 사방에서 최루탄을 방안에 까지 무차별 발사하며 어린이 할머니, 아녀자들이 구 토와 실신 상태인데도 마구잡이로 끌어내 길가에 내 썰매치고 소중히 아끼던 가재도구를 마구잡이로 파괴시키고 수십 년 정들었던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미친개 날뛰듯이 마구 부셔댔습니다.

이에 항거하는 주민들을 폭언과 욕설을 퍼부우며 남 집삼때 뒤 했냐는 등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자비한 행 동을 저지르며 닳치는대로 연행해 갔습니다. 저희 세입자 사무실과 주위의 가옥들은 거의가 다 파괴되었고 앞정서 일 하던 한재선, 김희준, 원명희씨 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무참히 구타하여 앞니가 붙어지고 눈두덩이 부어 눈도 못 뜨는 피투성이의 상태였으며 연행자중 우리의 동지 한재선, 원명희 두사람을 철거정책 반대 투쟁에 앞장 섰다는 죄로 구속 시켰고, 김희준의 부인은 경찰의 발길에 채여 자빠지면서 척추에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중입니 다. 이 광경을 지켜본 주민들은 치를 떨며 반항해 보았지만 역 부족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하느님 도 노 했는지 쏟아지는 장대비는 그칠줄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철거는 계속되었고 길 거리에 내썰매쳐진 가재도구 이불, 식량, 어린이의 책, 노트, 옷 등이 비에 젖어 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빼앗길것 다 빼앗기고 길거리로 쫓겨난 우 리 주민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텐트를 치고 비를 피하고 더 더욱 굳은 의지를 갖 게 되었습니다. 민주화 하겠다던 노태우 발표가 얼마 되었다고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놓는단 말입니까, 빈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민주화는 거짓에 불과하며 민중을 확실하고 정권을 탈취한 군부 독재자 들의 만행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빈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독재 정부에 우리 수백만 도시빈민들은 함께 용 처 빼앗긴 생존권을 되찾을때 까지 죽어도 불사하고 끝까지 부쟁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를 갈망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독재 정부를 타도하고 민주정위 이룩하기 위해 외로이 부쟁하고 있는 우리 빈민 들에게도 적극 동참하여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 1. 민주화 한다더니 살인철거 왜 말이나!
- 1. 최루탄 난사하는 폭력 경찰 물러 가라!
- 1.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1987. 9. 30.

창신 3동 철거민 일동

" 초 대 장 "

이웃 형제 여러분 ! 우리모두 기쁨과슬픔을 같이 나누시다.

비록 어지껏 당해야했던 너무도 큰 괴로움과 슬픔, 좌절에 비치면 아주 보잘것

없는 조그마한 기쁨이며 승리 이지만 창신 3동철거민의 우리 !

같은위로 이집 이후 - 이렇 게 조그마한 기쁨 과 승리도 있었기에 이 조그마함

을 어이 기난한 이웃형제분들과 나누고 더욱더 단결하여 우리의 공통된

괴로움과 한을 이루고 쟁취 합니다.

창신 3동 철거민 들은 나하나 만의 힘과 지혜로는 우리의 공통된 괴로움과

슬픔을 해결 하기에는 우리에게 힘이 너무나도 모자라다는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고 았았기에 이번의 조그마한 기쁨이며 승리의 결정제인 희망의 연립 예비

후택 손공을 기하여 각지역의 같은고통과 슬픔 에 심긴 빈민이웃형제분 들을

초대 하며,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공통된 괴로움과 서러움을 한뜻으로 모아

우리의 뼈사못친 한을 결의 하고자 합니다.

서척척 형제 여러분 ! 그외에 같은고통을 겪고 계시는 북우한 이웃 여러분 !

우리 함께모여 기쁨과 괴로움을 나누고 앞으로의 희망을 이야기 하며 굳 게

단결하여 우리의 한을, 우리의 공통된 소원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손으로

기뻐코 쟁취 합니다.

기난한 이웃성제 여러분들 ! 항상 건강하시길 - 항상 웃음이 함께 하시길 빕며

3월 20일 오후 7시에 여러분의 웃음땀, 굳은 승리에 가득찬 모습을 기

다리는 여러분의 이웃 창신동 철거민 일동 올림.

장소 : 종로구 창신 3동동대문 기동대본부건물외편 공원.

시간: 1988년 3월 20일 (일요일) 오후 1시.

목적: 재개발지역 및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거등으로 생존권, 생활권, 잠집곳 등을 위협받거나 쫓겨나고 있는 우리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안의 의 우리 삶을 지켜나가고 찾기위한 결의대회. 창신동은 공원에 살게다는 결의하기로 함.

주최: 창신 3동 철거민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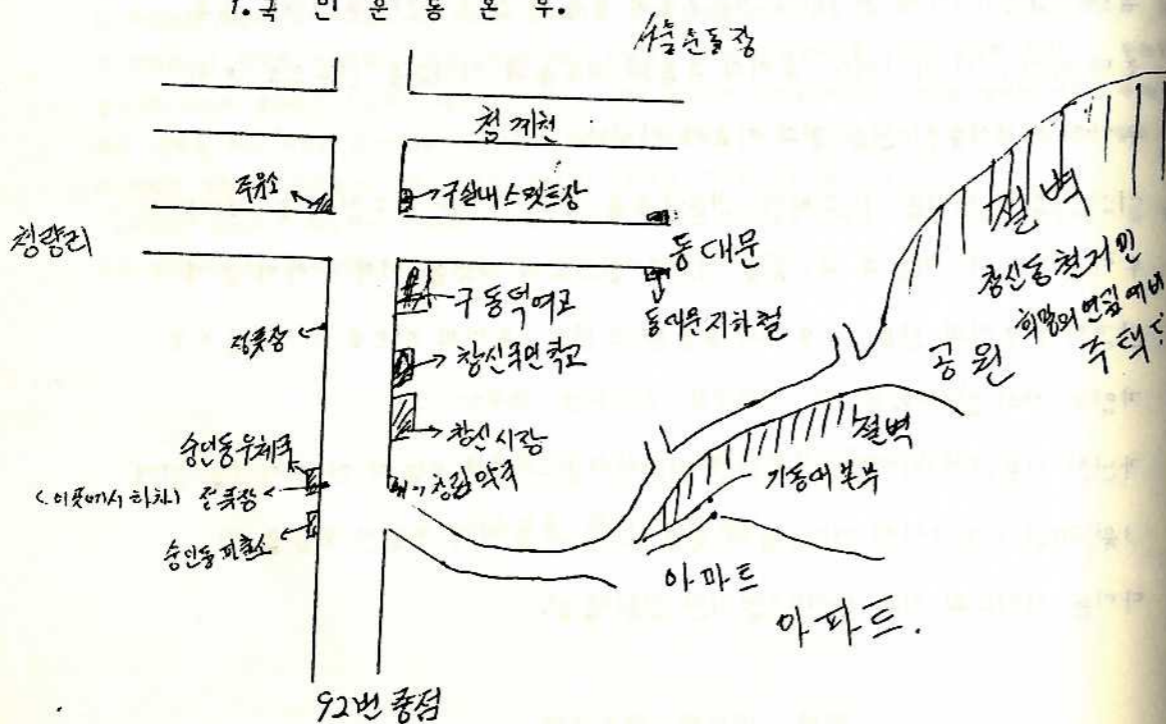
주관: 서울 철거민 협의회.

후원: 1. 전주 고 도시빈민회

1. 기독교 도시빈민 선교회.

1. 서울 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1. 국민은동본부.



우리의 보금자리를 죽각 원상 복구하라!

- 비록 천막집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쫓겨날수는 없다 -

저희들은 종로구 창신 3동 재개발 1.2 지구에 살던 새입자들입니다. 지난해 이곳은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고급맨션을 짓기 위해 저희들을 내쫓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재개발이였기에 저희 가난한 새입자들은 돌돌뭉쳐 근본적인 주거대책,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대로도 살수있는 재개발정책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었습니다. 87년 8월 29일 장대같은 빗줄기가 퍼붓던 날 전경 백골단 철거장패가 800명 동원된 강제철거를 저희들은 당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단결된 힘이 약했음을 무자비한 권력 앞에 의한 사무치게 느끼며 저희들은 창신 3동 내에있는 공원 부지로 연료한 할머니와 어린아이들, 몸져 누워있는 환자들을 데리고 집단이주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겨울의 혹한은 엄청난 우리들의 잠자리인 천막을 마구 휘젓고있고 우리의 몸장이를 싸늘하게 얼게했지만 우리는 보통사람, 노대 우대통령각하의 말씀을 믿고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으며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유력할 나을, 우리민족의 명절인 정월대보름 하루 전날입니다. 비록 이렇게 살고있지만 내일 명절에는 잡곡 밥이라도 자식들과 같이 한술 먹고 싶었는데 ... 오전 10시 30분경 종로구청 직원과 철거장패 20여명이 봉고와 트럭을 몰고 마치 야유회에 놀러온 사람들 처럼 저희들 천막에 왔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나마 찬바람을 막아주던 우리의 보금자리를 마구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못노래까지 불러가면서 4번의 철거공에 조금났던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발로 차고 나무등으로 내리찍어 세간살이는 거의 다 부수어지고 말았으며 옷과 이불도 채 식우지 못한상태 었기에 언저범벅이 되었고, 쓸수있는 나무는 모조리 분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감지할기 켜드면서 우리를 보고 희죽거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울며 항의하는 할머니 아낙네들에게 「이곳에 살기때문에 「부순다」고 하면서 욕설을 퍼부어했습니다. 우리는 반항도 하지 않았고 아니 할 생각도 못한채 났나간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시간에 천막주인들 대부분은 노동일을 나가기 때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천막은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주민 몇사람 뿐이었습니다.

이 처가운 날씨에 오늘밤을 어린자식들과 연명에서 자야할 현실이 너무나 우리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제 사람 새끼들이 할것인가 하는 울분이 무식한 우리들 가슴속에서 북받쳐 올랐습니다.

오후 4시 30분 내일 학교에 갈 자식들들 가방을 생기게 해서 주민 20여명이 공부가방을 뺀 자식들들 손을 잡고 종로구청 민원봉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은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높은분이라 만날수 없었고 주택과장이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추운날씨에 천막을 철거당해 자식들들과 잠잘곳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루밤 자게 해 주십시오」 울며 부탁했더니 그과장님은 저희들에게 「그러면 갱생원에 보내주겠다」고 배려받은(?) 말씀을 내 뱉으십니다. 또 밥물세계 달린 경찰아저씨는 요새 날씨도 인추운데 왜 여기까지 와서, 수반을 비우나 찾아 가서 면담에 이불을 깔고 자도 얼어죽지 않으니까 돌아가라고 개새끼만도 못한 말을 지껄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의 원과 형사들이 이제는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민원을 처리할 시대가 아니라는등 돌아가기를 권유했지만 우리에게 그런 이 얼어죽으라는 소리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7시경 사복경찰 15명이 우리들을 들어내려 했지만 우리는 완강히 버텼습니다. 공권력으로 처리해서는 직접적으로 구청과 경찰에 책임이 돌아간다고 느낀것인지 그들은 창신 1, 2 재개발지구 조합장들을 구청으로 불러들여 현상을 하게 했으며 그내용은 오늘밤 잘 여관방을 잡아주고 천막을 내일 다시 원상복구에 주기로 해서 저희들은 오후 9시경 구청을 나왔습니다.

여관방에서 하루밤을 자고 3월 3일 약속한 천막원상복구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다른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천막에는 27세대가 살수있도록 지어져 있었고 주민들 11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천막이었는데 조합에서는 원상복구비로 100만원을 넘겨 지출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돈 얼마를 더달라는게 아니라 살 수 있도록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 천막생활이지만 식구들끼리 오붓이 모여 잠곡밤에 나물국이라도 먹고 싶었던 작은 희망을 보통사람들은 보통일처럼 짓밟고 말았습니다.

제2부 철거민이 본 철거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지만... 되는 것입니까?

시민 여러분!

우리가 빈곤한 집을 내달리는게 아닙니다. 자식새끼를 모시고 살 최소한의 보금자리라도 우리는 안심하고 살고 싶습니다.

종로구청은 우리의 천막집을 즉각 원래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먼저입니까? 몇 자 법 권리가 먼저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죽이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빈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종로구청장은 사과해야 합니다.

게고장 한집있어 이 추운날씨에 느닷없이 철거라니 이게 무슨 난 버락이며, 이래도 국민의 공복이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대로 끌려갈 수 없습니다. 아니 끌리신래야 끌리실 때가 없습니다.

사람잡는 정부당국, 무자비한 법집행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1988. 3. 3.

창신 3동 철거민 일동

창신 3동 철거민 천막촌, 3월 2일 무자비하게 철거  
-종로구청 철거반원 20여명이 마구잡이로 부수-



3월 2일 10시 40분

창신 3동 시민공원  
매우 많은 구청철거반원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닦는대로 부수었다. 기둥을 분지르고, 천막지붕을 찢었다. 심지어 가재도구까지 아랑곳없이 여차고 말기드렸다.



그들은 뒷짐을진채 곳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아무런 가책이나 주저함도 없었다.

" 이웃 형제 여러분들께!

각 지역의 가난한 이웃 여러분!

우리 창신 3동 철거민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재개발로 인해 강제 철거 당하여 이곳에 왔었습니다. 창신 3동 세입자들은 당시 1987년 3월 부터 재개발 반대 운동에 하다가,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우리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계속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악독한 자들은 1987년 8월 29일 태풍경보와 호우 주의보에도 불구하고 백골단을 앞세우고 철거 강매를 몰고와 우리들의 피땀어린 가재도구를 모조리 빗속으로 던지고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마구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막다가, 많은 중상자와 많은 부상자를 내었고 시도부 두분이 구속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힘을 잃고 우리들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것에 농분을 느끼며 피는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적시고 전락상 시립공원으로 거주지를 옮기어 근근한 삶을 이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독한 무리들은 이를 용납치 않고 87년 11월 초부터 12월 말경 까지 찬바람을 막아주던 우리의 보금자리를 또 다시 짓밟았습니다. 이미 힘을 잃은 주민들은 당시 그냥 언짢을 치며 아기를 끌어 안고 눈물만 흘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고 보통사람답게 한반도 민족의 민족제 일일 음력 1월 14일

은 가족과 이웃이 모곡밥을 짓고 가족과 이웃끼리 경을 나누는 바로 그 날 아침에 우리의 판자집을 아주 잔인하게 짓이겨 뺐습니다. 가난한 우리주민들은 다시 눈물을 흘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

\*\*\*\*\* 전 애국시민에게 고발합니다 \*\*\*\*\*

나 하였습니다. 그 슬픈 와중에서 누군가가 이왕 죽느니 구청에 가서 죽기살기로 싸우자 하였고 울던 주민들도 본분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 구청으로 가자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구청에 갔고 소파에 혹은 맨바닥에 앉고 드러누워서 너희가 우리집을 부수었으니 여기서 살겠다. 죽으려면 죽어라 하고 농성하고 있던 중 이 찬계절에 야속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이웃 당신들이 우리를 방문하고 위로를 하며 고통을 같이 하였을때 우리는 꼭 당함 필요안은 없구나 우리도 힘을 합하면 저들과 대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희망과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가난한 이웃 당신들의 도움으로 작으나마 한음 풀고 보상비를 받아 이제 우리 보금자리 재건설에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웃 형제 여러분! 각 지역의 가난한 이웃 여러분! 서철협 형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삭막한 이 세상에서 당신들이 보여준 형제애는 우리 창신동 주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되려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빈민 단결하여 다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아기를 위하여

아이들의 생존권을 증취합니다!

1988년 3월 5일 창신 3동 철거 주민 일동

우리는 종로구 창신 3동 재개발 1.2지구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로서 현재는 강제철거된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통일공원에서 살고있는 철거민입니다. 우리 철거민들이 이렇게 농성을하며 7일동안의 단식등 20여일간을 생업을 포기하고 나선 이유는 너무도 억울하고 가가 막힌 꼴을 당해 강압에도 고발을 하였지만 경찰은 힘이 있는 자들 편에 서서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들은척도 안하기에 이제 우리 철거민 100여명은 죽음을 각오하고 감사의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은 87년 4월에 세입자 대책협의회를 발족시킨이때 억압한 5공화국의 하수인인 경찰과 철거당배들의 무자비한 탄압과 폭력에 굴하지않고 장렬하게 생존권 쟁취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87년 8월 29일 폭종주의가 내려진 가운데 백골단, 전경, 철거당배등 수천명에 의해 삶의 보금자리를 무참히 짓밟히고 3일동안이나 빗속에서 사는것 같지 않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빗속에서 강제철거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우리를 이끌던 세입자 대표 두사람이 갖은 구박을 당하면서 경찰에 강제연행되어 구속기소를 당했었습니다.

1. 우리는 왜 분양권을 거부하고 생계대책비를 선택 하였는가 ?

이러한 우중강제 철거와 백골단 전경 철거당배에게 얻어 맞고도 구속된 우리형제들은 그 댓가로 생계대책비를 받기로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주민총회에서 분양권을 택하지 않고 생계대책비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분양권을 받아봤자 실제 입주할때 일시불로 지급해야할 1,300 여만원의 목돈이 없고, 두번째는 당연히 목돈도 없고 유지할 능력도 없기에 분양권을 받아봤자 팔고 나가야 되는데 이때 협상하며 들어올 근처의 복덕방과 복부인들 그리고 재개발에서 제비를 보는 건설회사(창신동은 쌍용건설임)에게 비밀을 주기 싫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히려 우리 세입자들에게는 공중에서 떨어진 돈같이 선전하여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려는 우리의 건강한 정신을 감아려고 세입자들이 여기저기 재개발 지역을 떠돌면서 부기를 한다고 역선전할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합동재개발의 투기적인 속성을 스스로 거부하기 위해서 분양권을 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작은 문제이지만 한세대용 아파트이기 때문에 방크기가 다른 구조에서 3가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희들끼리 들어가서 죽든 살든 싸운든 나는 모르겠다는 아주 무책임하고 가중스러운 수단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분양권을 절대 거부하고 생계대책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50에서 80여만원 까지의(가구원에 따라 액수가 다름, 통장에 표시되어 있음) 생계대책비보다 분양권의 시공 가격은 낮았으므로 정말 우리가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 기회에 한문 잡아 보겠다는 심보였다면 당연히 분양권을 택했을 것입니다.

2. 왜 생계대책비만을 받으면서 분양권 서류를 떼어주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

8.29 강제철거의 분노와 한음 삼십 여유도 없이 우리는 구속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는 조건으로 주민총회를 거쳐,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통일공원으로 이주한다면 전기, 수도, 잡지를 자제를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생계대책비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생계대책비를 받으며 갔을때 조합은 우리에게 분양권 지급 인감을 떼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우리 주민들이 그런 서류를 떼어줄수 없다고 항의하자 조합측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소리로 위협 공갈을 쳤습니다. "구속자가 만약 석방안되면 당신들이 책임질수 있소?" 국민 여러분! 이런 공갈 협박에 서류를 떼어주지 않을 주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후 구속자들은 석방은 커녕 장영 10개월, 1년을 살게 되었고 또한 통일공원에 이주했지만 전기, 수도, 자재 지원등의 약속을 지키는 커녕 한겨울에도 세면이나 강제철거를 당해 눈발 날리는 엄동설한에 한에서 잔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3. 돈도 아니고, 분양권도 아니다. 다만 생계대책비 수령 서류로 환원 시켜라 !

돈 액수가 힘이 냈다면 또 이왕 돈욕심을 부키기로 작정했다면 분양권을 달라고 하지 왜 생계대책비를 선택했겠습니까? 이게와서 분양권 서류를 생계대책비 서류로 환원시켜라는 우리의 요구를 저들이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오히려 뭘한것 아니겠습니까? 돈액수에 차이가 없다면 서류가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만약 생계대책비 수령으로 바꿀때 저들(시공회사인 쌍용, 종로구청, 조합) 측으로는 곧 자신들이 분양권을 팔아먹은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지고 모자리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무슨 억압한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역선전하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생계대책비는 4인가족, 5인가족 기준액수가 어느 재개발 지역이든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서류는 분양권 액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수천세대의 분양권 서류를 얼마나 챙겼는지 또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88년들어 재개발 지역 보상비가 500에서 600만원선을 육박한 것만 보더라도 그 액수가 수천억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투기액의 피해자는 결국 집없이 쫓겨난 전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수많은 세입자들이 우려처럼 갖은 기만과 온갖 위협속에서 이러한 분양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신동 25세대 형제들은 수많은 세입자들이 수탈받은 분노를 체념하고 한성인 침묵으로 당할수만 없었습니다. 생존권 투쟁으로 흘린 피와 눈물이 담긴 도시빈민의 정당한 권리마저 이렇게 수탈당하고 기만히 두고 볼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당하고 살아온 400만 도시빈민의 진상을 폭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철거당배들의 피눈물 섞인 사기 기만을 전 애국시민에게 고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공기를 가지고 이싸움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고야 맏것입니다!

1988년 10월 25일

창신동 세입자 대책협의회

### 3. 돈암동

#### 1) 일지

1988년

- .4.7 : 세대위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 .4.16 : 동소문·돈암동 세입자 900여명 참석하여 세입자대책위원회 발족.
- .4.21 : 서울시청에 주민 821명 연서하여 진정서 제출(주택개량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대책 요구). 서울시철거민협의회 주최 “도시빈민 생존권 쟁취대회” 참석.
- .4.25 : 서울시청으로부터 진정서에 대한 회답 받음.(사업계획결정고시일 현재(86.1.10) 당해 지역내 1개월이상 거주하고 2인 이상의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동계 정상세대에 한하여 구역내 소형아파트 방1개 특별분양권 내지 2개월분 주거대책비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하겠음).
- .5.4 : 준비위원회에서 세입자대책위원회 임원 구성(회장 이태교).
- .5.7 : 재개발조합에 100여명 항의(요구사항: 철거된 집은 잔재를 깨끗이 치울 것, 쓰레기 및 오물을 치울 것, 철거로 인해 파손된 수도파이프 보수와 단전, 단수된 집 복구, 철거 중지).
- .5.9 : 자진철거 중지를 외치며 150여명 조합 사무실에 항의.
- .5.30 : 5.25일 조합에서 세대위를 분열시키기 위해 ‘세입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란 안내문을 살포. 이에 ‘조합의 안내문을 폭로한다’라는 반박성명서 제작 배포.
- .6.5 : 세대위 주최 서울시철거민협의회, 기독교도시빈민협의회, 천주교도시빈민회 후원으로 1,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도시빈민 생존권 및 서민주택 쟁취대회” 개최. 집회 후 평화대행진 중 삼선교에서 경찰과의 충돌로 강미옥(여, 29)의 주민 23명 부상. 치료비 전액 성북서에서 부담.
- .6.25 : 세대위 기관지 “넓은 마당” 창간호 발간.
- .7.13 : 주민 250여명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농성 중 폭력배 동원으로 농성 주민 한민자씨의 다수 부상 당함.
- .7.14 : 7.13사건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성북서 정문 앞에서 주민 300여명 농성. 주민 항의에 폭력배 2명 구속.
- .8.6-7 : 동소문·돈암동 세입자대책위 주최로 도시빈민 놀이마당 “함께 사는 세상” 개최.
- .8.28 : “반민중적 올림픽으로 탄압받는 도시빈민공동투쟁위원회 결성 및 노점 단속, 강제철거 저지 결의대회” 참석.
- .9.21 : 서철협 주관 “도시빈민 한가위 올림픽”의 1부는 한성대에서 개최, 2-3부는 동소문·돈암동 지역에서 개최.

- .11.3 : 서울시, 건설부, 청와대, 민정당 등에 주민 1,061명 서명 날인하여 진정서 제출(재개발 구역내 녹지 해제하여 장기 저리용자 서민주택 혹은 영구임대주택 지어줄 것을 요구, 성북구청으로부터 해제 요구 지역은 존치해야할 지역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 .11.16-17 : 도시빈민공동투쟁위원회 주최 “제56공화국 재개발비리만행 폭로 규탄 및 깡패철거 결사저지 결의대회” 참석.

1989년

- .1.19 : “도시빈민 생존권운동 탄압 폭로 규탄 및 분쇄 결의대회”에 600여명 참석, 집회후 주민들 도로점거 농성.
- .2.2 : 강제철거(전경, 백골단 7개 중대 1,000여명, 철거반원 400여명 동원됨).
- .2.15 : 강제철거(전경 비호 아래 철거반원 300여명 철거기도, 박현숙씨의 부상자 다수 발생).
- .2.18 : 세대위 부회장 정상률씨 피살.
- .2.22 : 고 정상률열사 도시빈민장.
- .10.9 : 조직폭력배에 의한 살인적 테러(주민 5명부상)12).
- .10.12 : 주민200여명 조합 앞에서 폭력사주에 대한 항의농성.
- .10.17 : 돈암동 살인테러 규탄집회를 서철협 주관으로 서울역에서 가짐(김성규 조직국장 및 임석천 조직1차장 구속).
- .10.20 : 오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이기훈, 김규상, 김태일이 조직폭력배에 의해 납치 당함.
- .10.22-23 : 주민 350여명 성북서앞 농성(요구사항: 조직폭력배 전원 구속, 직무유기한 사건 책임

12) 1989년 10월9일 20시30분경부터 주민들이 지역 공터(넓은마당)에 모여 앞으로 예정된 강제철거에 대한 대책과 세대위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던 중 지금까지의 조직폭력배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경고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22시10분경 세대위 사무실에 도착하여 경고와 규탄을 하던 주민들을 이들 조직폭력배가 기습적인 테러를 자행하였다. ㄱ) 이경수씨의 경우: 당시 이경수씨는 주민회의가 끝난 후 고 정상률씨 부인과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가스총을 쏘아 정신을 잃게 한 후 해머로 등을 가격하여 쓰러진 상태에서 사시미칼로 손목을 찌르다가 잘들어가지 않자 우측 대퇴부를 찔렀다. 그렇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 폭력배가 왼쪽 상완부를 손도끼로 가격하자, 또 다른 폭력배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함으로써 “우측 대퇴부 열상, 좌측상완부 좌상, 우측흉부 좌상”을 당하였다(사당의원 입원). ㄴ) 김재민, 이근옥, 김홍겸씨의 경우: 조직폭력배에 쫓겨 도망가다가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해 김재민씨의 경우, 허벅지를 칼에 찔리고 머리를 칼로 맞아 중태에 빠지고, 이근옥씨의 경우 좌측 네 번째 중수지 골절로 3주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김홍겸씨의 경우 골목에서 쫓기다가 폭력배들이 집어던진 물체에 맞아 “다발성 찰과상과 골반부 좌상”을 당하여 쓰러진 후 깃발하며 전신을 구타당하였다. 당시 조직폭력배들은 일본칼, 손도끼, 사시미칼을 꺼내들고 “다 죽여”라고 외치며 닥치는대로 휘둘렀다. 그 외 경상 다수. 이후 조직폭력배들은 23시30분경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성북경찰서 소속 전경과 형사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법천지를 이루며 날뛰었는데 10월10일 02시30분까지 주민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어른들이 모여있는 집을 골라 보복적인 철거를 감행하기도 하였다(동소문·돈암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10월9일 22시경 세입자들에 대한 살인적 테러 상황’, 1989.10.10).

자 문책, 폭력사주한 재개발조합장 구속).

- .10.31 : 지역 진입로에 대한 철거. 전경들이 최루탄을 무차별 투척하여 이도경, 김규상 등 주민 약10여명 부상.
- .11.14 : 강제철거. 철거반원 약600여명, 전경 1,000여명 동원됨. 당시 철거반원들의 지휘는 서종범, 김중진 등 조직폭력배가 맡았으며 경찰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주민 허정자씨가 해머에 머리를 맞아 90년 3월21일까지 사당의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며 최경급, 이경숙씨등 15명이 부상을 당함.
- .11.15 : 조직폭력배 약60여명이 세대위 사무실을 습격. 이들 조직폭력배는 서종범, 김중진 등의 지휘 아래 20명씩 3개조로 나누어 세대위 사무실을 습격한 후 사무실 내에 있던 애플, 메가 폰, 기타 집기류를 박살낸 다음 해머로 세대위 사무실 전파시킴.

1990년

- .3.20 : 서철협 주관 "폭력 철거 결사저지 및 임대주택쟁취대회"에 주민 약70여명 참석.
- .3.26 : 구민회관에서 진행된 구청장 간담회에서 구청장은 "세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고 약속.
- .3.28 : 구청으로부터 공문서 전달받음(영구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세입자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졌으므로 현장사무실 건립 협조, 입주 세입자 조사 선발, 자진 철거 및 이주 준비 해줄 것).
- .4.2 :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 요구하는 결의서 발송. 주민대표 성북구청장 면담.
- .4.7 : 주민대표 3인 서울시장 면담.<sup>13)</sup>
- .4.10 : 재개발 조합장 오병천과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공증서 작성.
- .4.24 : 잔류 세입자들 가수용시설 작업.
- .4.27 : 영구임대주택 입주추진위원회 발족.

2) 관련 자료

- 제11차 총회 의사록, 돈암제2구역제1지구주택개발조합, 1986.11.8.
- 서울특별시, 진정서 회신, 1988.4.22.

13) 서울시 방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에 한해서는 다음 2개 방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1) 타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는 최고 200만원 한도의 월세 보증금을 시에서 용자 알선하여 이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타지역 이주가 불가능한 세대는 영구임대아파트 건립부지 약3,000여평에 세입자 스스로 가수용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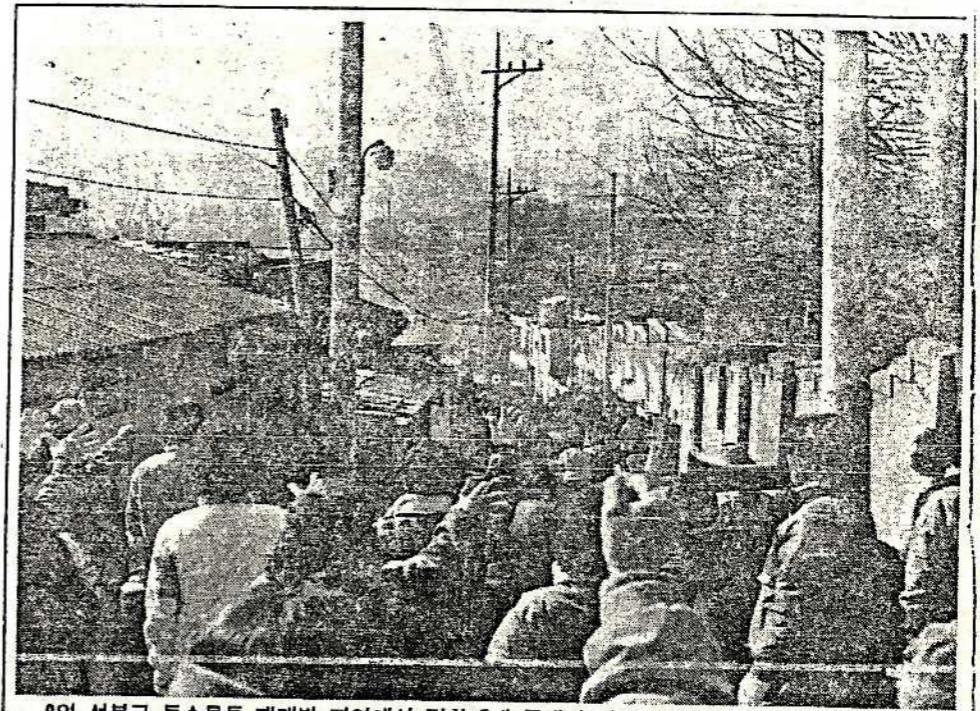
- 동소문구역 주택개발조합, 이주 및 철거 촉구, 1988.5.4.
- 동소문구역 주택개발조합 조합장 오병천, 공고문, 1988.5.10 / 1988.6.
- 동소문지역 주택개발조합, 안내문, 1988.5.25.
- 재개발촉진추진위원회, 조합원 여러분 큰일이 났습니다!
- 동소문구역주택개발조합, 각서.
- 동소문·돈암동 세입자대책위원회 회장 이태교, 공개 결의서, 1988.11.29.
- 동소문·돈암동 세입자대책위원회, 보도자료 '10월9일 동소문·돈암동 재개발지역 세입자에 대한 조직폭력배들의 집단 테러 사건 진상', 1989.10.10.
- 덕수합동법률사무소, 사서증서인증, 1990.4.
- 전국빈민연합 정책선전실, 빈민운동, 1990.9.18.
- 성북구청장, 정책자료 송부, 1993.6.17.
- 박세훈, 「서울시 무허가정착지 재개발 과정에서의 갈등연구-교환가치기제와 사용자 치추구행위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 유인물 및 기타

- 돈암골 「달동네」재개발, 중앙일보, 1986.1.13.
- 동소문·돈암동 세입자대책위원회, 방1칸 특별 분양권과 소형 아파트 분양권은 될 수 없다! 서민주택 보장하라!, 1988.5.18.
- 동소문·돈암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조합의 안내문을 폭로한다, 1988.5.30.
- 동소문·돈암동 세입자대책위원회, "도시빈민 생존권 및 서민주택 쟁취대회", 1988.6.5.
- 동소문·돈암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성명서 '400만 도시빈민의 생존권과 서민주택 쟁취를 위해 총매진하라!', 1988.6.5.
- 동소문·돈암동 세입자대책위원회, 넓은 마당 제1호-제5호, 1988.6.26-1989.3.11.
- 동소문·돈암동 세입자대책위원회, 도시빈민 놀이마당 "함께 사는 세상"-동소문·돈암동 주민 대동 한마당-, 1988.8.6-7.
- 서울시철거민협의회, 도시빈민 한가위올림픽, 1988.9.21.
- 세입자 일동, 세입자 여러분께, 1988.12.
- 돈암동 세입자대책위원회, 뿌리운 붉은피 빈민투쟁의 핫볼로! - 고 정상률 형제를 추모하며, 1989.2.19.



- 진보정치연합, 이웃 살인 강요하는 비인간적인 재개발정책 즉각 중단하라! - 고 정상률(돈암동 세입자대책위원회 부회장)형제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89.2.22.
- 도시빈민공동투쟁위원회, 성명서 '정상률 열사의 가슴에 꽃힌 칼을 뽑아들고', 1989.2.22.
-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투쟁하는 양심"의 영전에 청년학생들이 드립니다, 1989.2.22.
- 동소문·돈암동 세입자대책위원회, 고 정상률 열사 도시빈민장, 1989.2.22.
- 천주교도시빈민회, 세입자의 생존권 투쟁은 하느님의 정의와 일치합니다-돈암동, 동소문 세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1989.6.5.
- 서울시철거민협의회, 성명서 '강제철거도 서러운데, 살인적 폭력행위 웬말이냐!!', 1989.10.17.



2일 성북구 동소문동 재개발 지역에서 경찰 5개 중대의 지원을 받은 철거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입자들이 골목길에서 대치하고 있다. 2/3 한겨레 <김선규 기자>

**철거반원·세입자 충돌  
인명피해는 없어**

2일 아침 8시30분께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동소문동 재개발지역에서 이 지역 재개발조합(조

합장 오병천)이 동원한 철거반원 5백여명이 빈 집 1백70여가구를 철거하려다 세입자들과 충돌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경찰 5개중대 6백여명이 출동한 가운데 철거반원들이 철거를 시도하자 마을 입구에 나무 판자와 철근 등으로 이중 바리케이드를 친 세입자 4백여명이 철거반원에게 연탄재 등을 던지며 철거를 저지했다. 8백여세대의 세입자가 이주하고 현재 1천4백여세대가 남아 있는 이 지역은 세입자들이 근본적인 주거대책을 요구하며 철거를 거부해 2년6개월째 재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순쟁 3년만...성숙한 중소촌·돈암동 재개발지역

# 철거싸고 대규모 충돌 우려

## 합작 운영회사에 의뢰 강행방침 굳혀 90.3.20 세입자 "더 갈곳 없다" 저지대 편성 맞서

자율시대 재개발대상지역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촉박한 본정이 계속된 성북구 동소문동·돈암동 재개발지구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닥치고 있다.

주거발조합측이 '재산권 행사'를 내세워 3년만 동안 끌고온 철거작업을 이번에 완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굳히며 따라 철거전은 운영회사에 철거용역을 의뢰하고 관할구청·시청 등 관청·군·시도 조속한 철거작업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세입자들은 철거를 결사적으로 저지한다는 자세로 타이어 1천여개, 방탄막 4백여개 등을 동원해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하고 있다.

이곳 따라 현재는 2백여㎡의 급경사 지막인 이곳에서 양쪽 물리력이 대규모로 충돌할 경우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곳 동소문동·돈암동 지구에 남아 있던 세입자 1천73세대는 최근 '3일정권'을 전격적으로 소멸이 되면서 '더 이상 갈래야 갈곳이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전세·월세값이 폭등하면서 철거를 결사 저지한다는 의욕이 크게 싹트려 올른 상태이다.

이곳 따라 세입자들은 17일 주일휴일을 갖고 19일부터 24개동을 4개동씩 6개조로 나눠 철거에 대비하기 위한 방산대기상태에 돌어들었다. 이들은 철거반의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용으로 자동차타이어 1천여개를 마련해 놓은 데 이어 방탄막 4백여개, 양전선 2백여개, 각목 쇠파이프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돈암동 재개발지구의 세입자들이 철거를 예상해 19일 오후 플래카드가 내걸린 마을 진입로에 자동차타이어를 엮어 만든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 <이종찬 기자>

후유증으로 숨지는 등 2명이 숨지고 1백여명이 부상당했으며, 10명이 구속(현재 4명 구속중)되는 등 마찰이 계속돼 왔다.

이 지역 '철거' 계획과 관련, 서울시설거민협의회(서철협·최장고광석)와 고려대·성균관대 학생 등이 이곳 세입자들과의 '연대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는 등 상황에 따라선 대규모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 지역 관할구청인 성북구청측은 "아직까지 철거일정이 잡히지는 않은 상태"라며 "철거과정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재개발 대책」 갈팡질팡

서울市 貫入者 입주권 무원칙 발급 49 501



서울북구 소문동·돈암동 재개발지역 세입자 2백50여명이 8일오후 철거에 맞서 세타이로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였다.

## 강제철거싸고 충돌들

### 서울東小門 貫入者 10여명 부상

【서울 8일 특파원 보도】 서울 동소문동·돈암동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철거에 맞서 벌이고 있는 투쟁이 8일 오후 2시에 한창이던 중, 관공로에서 관공로교를 건너는 차량과 충돌해 10여명 부상을 당했다고 서울경찰청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관공로교 건너편에서 관공로교를 건너는 차량과 충돌해 10여명 부상을 당했다고 서울경찰청이 밝혔다. 부상자들은 관공로교 건너편에서 관공로교를 건너는 차량과 충돌해 10여명 부상을 당했다고 서울경찰청이 밝혔다.

## 1차철거면 「방1칸」 재貫入者엔 「입대아파트」

### 졸속行政 「분쟁」부채질

【서울 8일 특파원 보도】 서울 동소문동·돈암동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철거에 맞서 벌이고 있는 투쟁이 8일 오후 2시에 한창이던 중, 관공로에서 관공로교를 건너는 차량과 충돌해 10여명 부상을 당했다고 서울경찰청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관공로교 건너편에서 관공로교를 건너는 차량과 충돌해 10여명 부상을 당했다고 서울경찰청이 밝혔다. 부상자들은 관공로교 건너편에서 관공로교를 건너는 차량과 충돌해 10여명 부상을 당했다고 서울경찰청이 밝혔다.

# 썰렁한 읍막서 새우잠 철거민촌 음울한 세밀



겨우살이 걱정  
집이 헐린 자리에 침묵을치고 겨울을 나게된 철거민  
들은 연말분기가 더욱 우울하기만하다.  
<서울신문 1987년 12월 25일 1면>

89 12/25  
동아

## 撤去班 들이 닥칠까 불안한 나날

### 수도권 5구각 막노동일거리 줄어 생計막막

수도권 5구각 막노동일거리 줄어 생計막막

수도권 5구각 막노동일거리 줄어 생計막막

수도권 5구각 막노동일거리 줄어 생計막막

수도권 5구각 막노동일거리 줄어 생計막막

수도권 5구각 막노동일거리 줄어 생計막막

수도권 5구각 막노동일거리 줄어 생計막막

수도권 5구각 막노동일거리 줄어 생計막막

수도권 5구각 막노동일거리 줄어 생計막막

수도권 5구각 막노동일거리 줄어 생計막막

제임자 **총안총회에**  
모두 참여합시다!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주민광장

# 넓은마당

**창간호**  
발행일: 1988년 6월 25일  
발행처: 동소문·돈암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전화: 922-2654

## • 보다 힘찬 단결로 서민주택 쟁취하자!

### 도시빈민 생존권 및 서민주택쟁취 대회 열려



6월 5일(일) 오후 2시, 동구여성  
후원에서 우리 동소문·돈암빈민  
형제 후원단체인 천주교 도시빈민회,  
기독교 도시빈민 선교회, 서울시  
철거민회의 회원과 타 지역주민 등  
1,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도시빈민  
생존권 및 서민주택 쟁취대회」가 열렸  
다. 본 대회에 앞서 동물림의 열린곳  
에 마주서 세입자 대책위원회 현판  
식을 갖고 선전대를 필두로 넓은마당  
을 한바퀴 돌아 대회장까지 길들이를  
하면서 대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대회는 정일량 총무의 사회로  
「민중의해」 철거현장에서 도시빈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요구를 요구  
하다 희생된 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  
작되어 「도시빈민 단결하자, 서민주택  
쟁취하자!」 「여름 좋은 올림피에 도  
시빈민 갈래 없다!」 등의 구호와 「일  
을 위한 행진곡」 「빈민의 노래」 「동소  
문·돈암동 출전가」 등의 노래를 부  
르며 문맹 투쟁의지를 과시하였다.  
이어서 본 대회 대회장인 이대교 회  
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올림피 이전에 대  
적으로 자행된 강제철거와 맞서 싸  
우기 위해 400만 도시빈민의 통일된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동소문 돈암동 세입자들은, 도  
시빈민의 생존권과 주거문제는 단순  
히 우리 지역의 문제 이전에 25개 철  
거지역의 문제임을 인식한다」면서 「이  
제 더이상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에는 속을 수 없다. 전정으  
로 세입자를 위한다면 장기거리의 서민  
주택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  
여 참석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  
수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초청인사로 온 민주통  
일 민중운동 연합 의장 문익환목사는  
「여러분의 생존권은 다른 사람이 해결  
해 주거나 한 권력자가 그쳐주는 것  
이 아니다. 400만 도시빈민의 단결된  
힘으로 힘차게 싸워 나갈때만이 쟁취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주  
거대책도 전정환이 오면 꼭 주머니나  
떨린은 서민주택을 충분히 갖고도 남  
는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바로 도시빈민들로부터시  
작된다」고 하여 동소문·돈암 빈민  
의 단결된 힘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그리고 후원단체 회장들은 힘차게 전진  
해 나가는 동소문·돈암빈민 형제의  
강철같은 단결과 거센 파도와 같은 투  
쟁과 찬란한 승리를 위해 뜨거운 박수  
를 열렬하게 보냈다고 말하였다.

이러 결의문 낭독에서 「현행 재개발  
정책을 무기론과 재개발실업제, 그리  
고 정부의 이익만을 위해 강행되고 있  
다. 이러한 거꾸로된 재개발 정책을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  
부의 우리 도시빈민들의 최소한의 요  
구인 서민주택을 건설하고 현저 세입  
자가 장기거리로 입주할 수 있는 정책  
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동소문·돈  
암빈민은 서민주택이 정착될때까지 철  
공같이 뚫어 부랑해 나갈것」을 동소  
문동·돈암동 1,800세대의 이름으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대회 성명서를 통해 「400만  
도시빈민의 생존권과 서민주택 쟁취  
를 위해 단결하고 단결하여 총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1부 순서를 마쳤  
다.  
대회를 마치고 2부 고사를 치루면  
서 정일량 총무는 고사에서 「철거  
쟁매 귀신」 「복부인 귀신」 「재개발  
실업제 귀신」 「전정귀신」 모두 물리쳐  
주시고 「장기거리 서민주택」이 쟁취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구성  
된 목소리로 빌었음에 참석한 모든 사  
람들에 눈물을 뜨겁게 하였다. 고사  
를 마치고 곧 바로 평화행진에 나선  
우리도시빈민 형제들은 선전대의 차

임새 있는 주도로 「동소문·돈암동출  
전가」 등을 부르고 「분양권은 필요없다  
서민주택 보장하라!」 「강철같은 단  
결하여 빈민생존 쟁취하자!」 등의 구  
호를 외치며 삼선교로 진출하였다. 이  
를 막기 위해 출동한 전경들과 격렬  
한 몸싸움을 벌이며 도시빈민 생존권  
을 위해 힘차게 싸웠습니다. 이 과정  
에서 폭력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암빈민은 서민주택이 정착될때까지 철  
공같이 뚫어 성북서 지휘관의 공서사과  
와 다친 사람들의 치료비용을 합의  
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우선 치료비  
는 전액 성북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일  
단 대회장으로 철거정면하게 올라와  
부상자를 파악하여 병원으로 후송하  
고 이날 대회의 마지막 행사인 주민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보다 문제제 단  
결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동소  
문·돈암빈민과 여러지역의 도시빈민  
이 단결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힘  
차게 싸워 나가야겠습니다.  
**희열풍은 올림피에**  
도시빈민 갈래없다!

### 창간사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형제로"

우선 우리지역의 소식을 듣게나다 창간하게 됨을 진 동소문·돈암 동 세입자 형제 여러분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세입자 형제들과 함께 어려움을 달래며 끌어왔던 세입자 대책 위원회도 벌써 두달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마련했던 지난 4월 16일 단합대회때의 서막같은 어느사이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주와 복부인,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온갖 희유와 분열의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끈질기게 단결력을 갖게된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우리 1,800세대 형제들이 땀흘리며 뛰여 다닌 결과라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6월 5일 대회와 평화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100여명의 전경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목적지까지 외연하게 행진해 나가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론 폭력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많은 주민들이 심한 상처와 피를 흘리는 광경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으나. 그러나 한가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우리가 가는 길

### 세대위회장 이태교

이 험하고 힘들더라도 정의로운 싸움은 꼭 승리하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싸움을 통해 우리 주민들의 집단 투쟁력을 보여 저로서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형제들과 함께 헤쳐나갈 것을 이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확신하는 바입니다.

세입자 형제 여러분!

우리 형제들의 목표인 '장기저리 서민주택'이 쟁취되는 날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갖가지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의 함정에 빠질때도 있고, 그리고 달콤한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있지만 한사람의 이빨자도 없이 힘을 합쳐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들이 원하는 서민주택은 쟁취되리라 확신합니다. 육된 삶을 살아가기 보다 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세입자가 됩시다. 다시한번 우리1,800세대의 귀중한 소식지인 '넓은 마당'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 ●주장● 세대위는 왜 필요한가

우리 달동네 세입자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아왔다. 부지런히 일하면 서도 가난과 억압에서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이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 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사회의 근본적인 잘못 때문이다. 흔히 힘있는 부자들은 우리 세입자들을 싸잡아 게으르고 무능하기 때문에 없애 산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인식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남을 혹사 시키거나 빼앗지도 않고 정직하고 묵묵히 일함으로써 힘있는 자들이 더럽혀 놓은 세상을 그나마 새 생명이 유지되도록 만들고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 힘있는 부자들이야말로 전쟁 불발하고 부끄러운 존재이다. 힘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어떠한 불의와 도 손을 잡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에 스투임 없이 행동을 취한다.

현재 우리 지역 외에 약 25개 철거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철거만 보아도 이것은 정부, 건설회사, 복부인 등 힘있는 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 가난한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지 않는가. 또한 이들에게 엄청난 물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개인,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없는 사람들은 '머리 수'가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풀려져 있는 많은 주민들을 모아 단결된 힘을 과시하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대책없는 철거자체를 반대하는 세입자 대책위원회(세대위)를 조직해 철거내 주민 전체가 참여할 기운

**동소문·돈암빈민 단결하여 서민주택 쟁취하자!**

### 616과 606번지는 우리 삶의 터전이다.

산이 가파른 고지대 동소문동, 돈암 2동 재개발지역, 성북 인구의 5%가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보금자리다. 넓은마당과 대추나무골은 우리 주민들의 혼돈한 것이 깃들어 있고 이웃간에 공동체적 삶을 이루며 살아왔던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불광역주택개발, 도시미관, 환경미화라는 이유로 재개발 조합이 결성되고 그 후 땅장사와 나누어 먹기식의 재개발 바람이 복부인을 설여 다 우리 모두의 생활터전을 마구잡이로 뒤엎어버리고, 조합과 정부는 세입자에게 배부, 특별보양권, 소형아트 등 중의 선별을 중용하며, 이러한 특혜를 누리라고 달콤한 사탕발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위로 강제철거라는 옷지 못할 위협을 하면서 말입니다. 요행히 8평짜리 입주권을 준다 하여도 8평짜리 아파트는 식구수에 비해 좁아서 도저히 살수도 없으며, 더우기 민간건설회사가 짓는 8평은 보증금, 관리비, 필납부역등 생활의 차르인데도 저히 세입자 형제들은 감당할 수가 없기에 복부인, 부동산 투기업자에게 팔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우기 그러한 형태의 아파트는 것지도 않습니다.

가족주와 조합은 우리 세입자를 보면 남 돈벌때 빛하고 지금에서 단라나는 중의 야유와 비난을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세입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해 6월 5일 서민주택 쟁취대회를 치루어 냈습니다. 1. 철거전에 보상책을 마련하라. 2.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재개발 정책은 철폐하고 서민에게 알맞은 서민주택을 지어 우리 지역부터 시행 공급하라. 3. 정부는 장기저리로 입주할 수 있는 서민주택을 보장하라. 4. 철거민들의 요구 사항을 내걸고 우리 동소문·돈암동 주민은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것을 명세하였 습니다.

이 행사과정에서 감미옥(9동 동쪽)씨는 전경의 군화발과 방패에 아랫배를 채어 제가 이글을 쓰는 이 시간에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70고령의 나이 드신 할머니는 방패에 머리를 찍혀 피를 날자하게 울리며 행진하였고, 한 아주머니는 앞가슴을 채어 달이 걸러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가슴이 계속 아물라 있어 한방치료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런 아픔과 많은 분의 희생을 통해 다시한번 단결해야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 재개발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더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낮과 밤, 새벽을 가리지 않고 매가본을 울리는 라고 소행 아파트 7평 단과대를 가리지 않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 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없는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수치 또한 아닙니다. 이말은 없는자의 변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움이 없는것입니다. 물론 불편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모르는 것은 더 큰 부끄러움이요, 알기를 노력하지 않는 것,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것을 피하는 것은 더 큰 수치입니다. 우린 없이는 살아도 부끄러움을 가진 일은 없습니다. 적당히 사는것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5월 5일 평화행진과 서민주택 쟁취대회는 훌륭했습니다. 어느 복부인, 투기꾼이 강히 우리를 엿보고 업수히 여기겠습니까.

이제 '나하나'가 우리 모두를 이루고 있음을 잊지마시고 매주 갖는 품오임과 통대기, 주민총회를 가정의 제 1행사로 정해 놓읍시다. 이번 대회에 뒤에서 은밀히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성의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 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제나 알한 내용으로 주민의 목소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돈암동 23동 동쪽 최 문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사의뜻 이어받아 주거대책 쟁취하자</li> <li>• 업사의뜻 이어받아 무기정권 철거하자</li> </ul>	<b>넓은마당</b>	제 5 호 • 발행일 : 1989년 3월 11일 • 발행처 : 동소문·돈암동 세입자 대책 위원회
--	-------------	---

## 이 한몸 죽어 빈민해방 된다면... 빈민열사 정상률동지 도시빈민장 영결식



노예를 팔고 민중과 상어를 맥을 때, 그 언기 속에서는 업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뒤 한편으로는 위스키를 마시며 사우나 방에서 비지담을 깨고 있는 돼지같은 놈들의 깔깔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찾기위해 동분서주하던 열사는 저들의 칼에 맞아 이제 만 석상으로 거역는데 열사를 죽인놈들은 여전히 살아 또다른 정상을 열사를 만들기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사회의 쓰레기같은 투기꾼, 그들의 악덕적인 조합에서는 음모의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우리 형제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줄거우하는 놈들의 웃음소리가 먹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열에는 민주화나 임대주택이니 하면서 신경통 황경호에 이어 업사까지도 죽여놓고 이제 또다른 열사를 만들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간악한 노예주만 놈이 서서 웃고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우리는 함으로 비통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와같이 우리보다 앞장서서 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찾기위해 열살히 활동하시던 우리의 동지 한분을 우리의 곁에서 떠나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을 동지!

누구보다도 세대위 일에 적극적이던 그를 재개발 강제철거는 한 영세한 가족주의 손발이 사러던 낱알을 가슴에 꽂고 숨지게 하였습시다.

농촌에서 가난에 시달리던 생활도, 산비탈로 몸을 학학거리며 울막아던 삶도 이보다 비참하지는 않았습시다. 그러나 독점제일과 근사정권의 잔인한 발군은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산산 조각내어 짓어 버렸고 그것은 결국 정상을 업사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으로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정상을 업사는 단손히 가족주의 손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열사를 동이하게 한 마수는 바로 복부인과 독점제일, 그리고 이들과 장자들을 맞던 노태우 군부독재의 손이었습니다. 이들의 손에 업사의 가슴은 검붉은 리를 뚜렸지만 그 뿌려진 피는 이제 영원한 빈민해방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가신님의 모습은 이제 더이상 넓은마당에도, 비법진 굴목길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모습 그 뜻은 이땅에서 더이상 억눌려 살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투쟁 의지속에 영원히 살아 숨실것입니다.

### 재개발 조합, 철거강제 공공가철서 기도 2.28.158

현 재개발 조합장 오백현은 88년 4월 16일 세대위 발족 이후로 조합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자 88년 12월 30일, 8월 15일 3회에 걸쳐 지역계 유인물을 살포하여 내부 분열을 획책하였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가자 88년 1월 17, 8일 양일에 걸쳐 지역의 핵심 청년대원 등을 불법 강제연행하여 구속하였으며 공가철거 협상을 유도하였다. ( 물론 배후에는 항상 공권력이 있었다 )

21일 메화동 병원에서 열사의 사신을 세대위로 옮기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강제철거의 아픔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시다. 그리고 동시에 열사를 앗아간 탐욕스럽고 잔인한 놈들에대한 참을수없는 분노를 담았습시다.

22일 주민총회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돈암 사거리에서 노예를 지날때 우리는 더이상 끌어오르는 분노를 누를길 없었고 마침내 분노는 오열로 변하고 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소문 돈암 형제들이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이며 눈이 두렵힌 오 병언은 민족의 대 축제인 명절을 4일 앞두고 2월 2일 전경 7개중대 1000여명과 철거장제 600여명을 돌려 공거철거를 기도하였다 ( 이때 사용된 경비는 약 3000만원 ) 그러나 우리 형제들과 각 지역 형제들 그리고 학생들의 단결된 힘에 놀려 공가 2개 전파 5개 부분파손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2월 25일에는 또다시 조합 대의원 회의를 망쳐하여 오전 7시 40분 철거장제 300여명을 동원하여 기습철거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역시 우리 형제들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에 밀려 단결도 철거를 하지 못하자 간악한 철거장제들은 주민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중장상을 입혔으며 심지어는 가정집까지 침입하여 부녀자를 감금하고 옷을 모두 찢은 상태에서 구타를 하는등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그런 만행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철거장제들을 물리쳤으며 오후 1시 40분 동구여상 후문쪽으로 가 옥주와 철거장제들이 전경들을 앞세우고 옥타오자 우리 주민들은 또다시 강력한 대응으로 이들을 물리쳤다. 이후에도 저들은 수차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자 오후 5시 30분 모두 철수하였다.

## 우리 생존권은 우리 힘으로!

돈암 10동역 넙은마당 마을 가까이 살고 사는 우리 돈암동, 동소문동에도 재개발의 바람은 오손도손 살아가던 이웃간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소위 덕지 한전에 팔려 살의 떡전을 입고 어디론가 불행이 옮겨야 하는 비극을 안고 목이 터져라 생존권을 주장하고 외쳐대는 것은 실로 평화의 전쟁이라 아니할수 없다. 정말 상상도 할수없는 인연의 철거장제, 전경들.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때문에 동족끼리 이러한 참극을 벌여야 하는가 ?

반면 바로 저 밑에서는 풍악이 울려대고 울창거리는데 누군가 추위에 떨며 아이를 돌쳐치고 이리저리 뛰고 누는 머리를 닦으며 누는 눈을 닦으며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수라장 속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서편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간장을 풀지 못하는 주민 가슴가슴속의 울어리는 눈에서 흘러주지요 ? 우리의 주민들은 그저 1+2=2 알고 열심히 가족들 부양하며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민에게 맺은 구속되었고 힘없는 우리들은 무전유죄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며 지금껏 힘을 모았다. 더이상 갈곳이 없는데 우리더러 어디로 가란 말인가 ?

주민들도 도망가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고양이를 물려 한다면 하물며 사람이 자신의 머를 지키기 위하여 향한 최소한의 발언이 이렇듯 압박한 수법과 격려에 걸리는 우리형제의 귀를 부르고 아픈 가슴 움켜쥐고 눈물을 뿌리며 " 임을위한 행진곡 "에 슬픔을 띄울수밖에 없었다. 오호 애국가 ! 마음이 하수선하여 아무 일손도 잡지 않는다. 그때도 이대로 머무는수 없는 작은 힘이나마 손에는 맞잡고 뜻을 함께하여 더욱 단결해 나가면 거대한 바위라도 돌릴수있는 힘이 생기고 작은소리 모아 함께 외칠때 커 놓은 곳에도 들리지 않겠는가? 없다는것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짓밟혀서는 안된다. 잘못되었은 두었다가도 쓸수 없기에 과감히 버리고 참된 민주화도 가는 발로에서 우리 서민들의 애환이 확실히 반영되어야 할 줄로 안다.

그때야만 함께사는 사회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



반민생존 압살하는 노태우일당 타도하자!

## 열사의 뜻 이어받아, 임대주택 생취하자!!!

청장년부장 황유산 평소 세대위와는 별로 인연이 없던 주민이 세대위가 어떤단다는 말을 남기고 갑자기 사라지면 주변 사람들중엔 씁쓸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면 우리는 가야할길에 대해서 심한 갈등을 느낀다. 고 정상을 열사의 장례식 이후 주민 형제들의 투쟁의지는 식었던 말인가 ? 아니다. 서로가 기억하기가 싫을 뿐이다. 현 임원진들의 긴 한숨소리와 더불어 우리 형제들의 목목부단한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나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아하는 소리가 기저를 떠면서 두팔을 이리저리 휘둘러댄다.

한 가정의 가장이요 우리 형제들의 막대한 청장년부가 새로 매어난다는 각오야말로 실시하고있는 사실을 주민들은 잘 알것인데 발길이 멀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내가 편하고 안전하면 돈다는 무사안일 주의에 너무 단련되었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솟는다. 철거대비는 어떻게 구축자는 언제 나오는지 방법 손잡은 누가 해야 하는지 이러한 모든것은 누구를 위한 소리침인지 아심한 밤에서부터 새벽까지 무슨 속죄인양 2~3명으로 구성된 순찰조 가 1주일에 3~4번까지 야개가 속 놀아지면서도 괴한으로 오해나 받지 않을까 빈궁가에 과중한 무리들 진야나 치지 않을까 ? 옥사나 허먼서도 힘들죽도 모르고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까지의 순찰이 끝나고 세대위로 돌아오면 휴하는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온다. 투쟁, 정취하는것은 무엇인가 ? 나와 너를 떠나 우리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부환의 내일이 될 것이 다 비록건대 한달에 한번이라도 참여했다고 나설수는 없을가? 치마두른 투사들은 무엇을 하는지 자못 어리송하기만 하다. 주민이라도 이 지역 공가의 실체는 어떻게 우리 지역의 순찰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수다스러움도 없고 깃대를 군두세우지도 않으니 불초 청장년들이여 주민 형제들을 하늘같이 섬기고 흰 은 동화에 목도를 허미숨에 차고 노란 완장에 시름을 달궈보렴 / 우리의 밝은 내일은 있을 것이요 또한 고생끝에 낙이 온다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 내 한복숨 쓰러진다면 동소문 돈암동 세대위는 풍지박산이 된다는 궁지속에 이별 저별 바빠보며 마음속으로 투쟁가를 할것 불어 봅시다. 주민 형제들이여 각성하라 ! 언젠가는 60~80명이요 지금은 20명 내외인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지역의 불침번인 청 장년부의 활성화를 위해 씨주한한 덜 마시고 성의있는 자제 경비를 마련하면 어떠 할지 ....

## 열사의뜻 이어받아 강제철거 막아내자!!!

- 진 료 안 내 -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7시
- 진 료 과 목 : 발칙 (이 배는 것), 보존처분(봉), 잇몸치료 (스킬링), 구강 교육
- 진 료 비 : 치료비 500 - 1000 원, 약값 500 - 700 원
- 진 료 장 소 : 넙은 마당 유아원

## 함께 모이자! 또래 공부방 으로.

89년 새봄을 맞이하여 넙은마당 유아원 "또래 공부방"이란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부방 방학 기간중에 교사들과 주민들의 협력으로 공부방의 새로운 교육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도배와 페인트칠 그외에도 여러가지 단장을 하였습니다. 위함했던 2층도 철조망을 쳐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부방 소식을 알리고자 공부방 앞에 게시판을 마련하였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89년 2월 24일 제 1회 졸업식을 갖고 3월 5일 제 2회 입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아부 5,6,7세와 국교부 1 6학년까지 아동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이며 시간은 유아부 오후 2시부터 4시, 국교부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입니다. 1달 교육비는 유아부가 4000원,국교부가 2000원 입니다. 사실상 교육비는 아직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교사들의 힘으로 운영되고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공부방 기금을 마련하고자 오는 3월 18일 (토)에 "일일 찻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많지만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또한 부족한 실정이어서 학내에서 "교사모집 홍보"를 하고있는중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 또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래 공부방 교사 일동

## 회원증 발급 안내.

- 회원증을 가지신 분들은
- 1. 철거투쟁로 신화 분해해결.해탈을 받으십니다.
- 2. 의도. 무료법률상담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거투쟁에서 부상당하신 분은 치료비를 보조해 드립니다)
- 3. 일용전원노동자, 파견부 권력선과 연결해 드립니다.
- 4. 그외 철거민의 모든 문제에 공동 책임 해결해 드립니다
- 발부 방법
- 세대위에 가서 회원가입 원서작성.
- 제출서류 : 1. 사진 2장, 주민등록
- 2. 가입비 - 1인당 1천원

# 한번 생각 해 봅시다!

집은 인간으로서 먹고, 자고, 쉬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곳이다. 또한, 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자식을 키워 다음 세대의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는 곳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집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집은 '살짜리'이다. 살 짜리가 없는 사람들은 뿌리없는 땅이없는 콘크리트위의 나무와도, 같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집이 없는 것일까?

씨가 뿌리도록 입하고있는 우리 동소문,돈암 형제들!

새벽부터 벌이 초동초동 떠있는 밤 늦게까지 사회의 온갖 일을 도맡아 하고있는 우리가 왜 집도없이 남의집 셋방살이를 견뎌야 하는가에 철거를 당하고 짐승처럼 내 쫓겨야만 하는가?

## 단결+투쟁+전진=승리

물론 가난해서이다.

그러나 가난한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만 있는 것인가?

누구말처럼 못배우고, 게으르고, 못났어?

아니다.

우리의 가난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 상황과 조건이 있었고 남의집 셋방살이를 견뎌야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잘못된 주택정책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강제수준의 향상은 일부 사람에게만 그 이익이 돌아간것에 불과했고, 주택정책은 갈수록 사립만을 위한 것이었다. 일례로 국민중 최상위 1% 계층이 전국민 재산의 32.1%를 소유하고있고 1977년부터 88년까지 15명 미만의 주택은 30%나 감소한데 반해 15~30명 주택은 100% 이상, 30명 이상 주택은 270%나 증가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뿐만인가?

1965년부터 1983년까지 가구소득은 22배 증가하는데 주택가격은 38배. 토지가격은 84배나 증가했는데 먹고살기도 힘든 가난한 우리가 어느 내집을 장만할수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세입자로 있는것을 어찌 우려했다고만 할 것인가?

시거든 팔거나 팔라고!

끝까지노라고 국민우연다는 정부가 이제는 고작 한탄하는것이 있는놈들 배려해 죽으라고 재개발까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것으로 앞섰는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로 뭉쳤고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억압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싸워왔다.

이제야라 저들도 처음에는 생계보조비하면서 88만원주고 모시더니 그것으로 앞다리가 방 1칸 특별분양군이다. 7명 소형주택이다. 하면서 연신 대책이란것을 내놓고.....

요즘에는 또 신문자상에 철거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이니 뭐니 하고 떠드는 것을 보니 조만간 판가 나오기는 나올것도 같은데... 그때도 그때까지는 악착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내쫓으려고 저말 할뿐이면서 강제철거를 들어오겠지?



우리 동소문,돈암 형제 여러분!  
누구말처럼 "고지가 바로 조-간데"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소?

우리 끝까지 한마음으로 단결합시다.

우리 끝까지 투쟁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고 숙물근성. 아무런성애 끼들은 가진놈들과 한번 멋지게 경쟁해 봅시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날에 우리 자식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해 줍시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겼는가를.....

## 넓은마당 게시판

- 현재 각 품 품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 3월 18일 토매공부방 기금마련 일일집회를 운영합니다. 장소 : 성신여대앞 카페카페 ( 백곡당 뒤 ) 시간 :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 3월부터는 회비가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통칙회의 결정 )
- 청장년부에서 야간 범범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강제철거 막아내고  
임대주택 경취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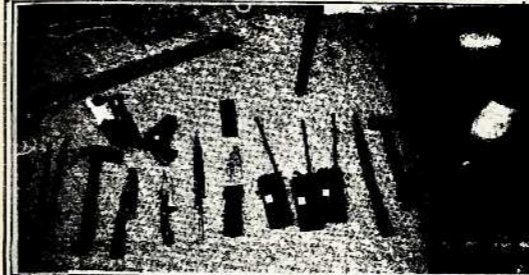
# 삶의 소리

## 회 의

발행처:서울시철거민협의회  
발행일:1989년10월16일

# 살인적 테러 자행하는 강제철거 음모 박살내자!!

- 술과 대마초 복용한 조직강패들 주민들에게 회갈, 일본도, 손도끼 마구 휘둘러



<별첨성서 서울총 동경비둘기 소집:속소에서 별첨>

지난 10월 9일 오후 9시경 새끼위 사무실에 모여 주민총회를 하던 돈암동 주민들에게 가해된 조합의 사주를 받은 조직폭력배들의 참혹한 살인적 테러에 우리 서철형 형제들은 분노와 경악을 참을 수 없다.

89년 3월부터 30여명이 패거리를 이루어 돈암동에 상주하면서 재개발조합과의 철저한 밀착을 통해 공가철거를 하고 이를 저지하는 지역인연인과 주민들을 팔을 들어내고 "당신의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봐라"며 협박을 일삼고 폭력을 휘둘러온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더이상 견딜수 없어 동네안의 폭력배들을 몰아낼 것을 결의하는 주민들을 향해 "다 죽여"라는 고함소리와 함께 일본도와 쇠시미발, 해머, 손도끼, 쇠피리드 등을 마구 휘둘러 저비탄에 나는 참상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김재민, 이근욱, 김용강씨가 팔에 찔리고 쇠피리드도 온몸을 구멍당하는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며 주민총회를 마치고 귀가중이던 이경수씨의 경우 개소총을 맞아 심신한 상태에서 70길이의 일본도로 손목과 허벅지를 찌르고 해머로 등을 내리쳤으며 손도끼로 어깨를 찌르는 중상을 입고 현재 서당의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술과 대마초를 복용한 (이들 폭력배의 속소에서 대마초가 발견됨) 환각상태에서 행해진 이날의 폭력사태는 철저하게 재개발조합의 배후조종과 성북경찰서의 방조이행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주목한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의 신고에도 20분이 넘어 출동한 성북경찰서 소속 형사들은 동네 골목골목에서 미친듯이 날뛰는 폭력배들을 잡을 줄을 생각도 않고 신속중립 구민회관에서 대기만 하고 있었다. 더우기 폭력배들을 걸기 살인적 폭력사태를 중단시켜줄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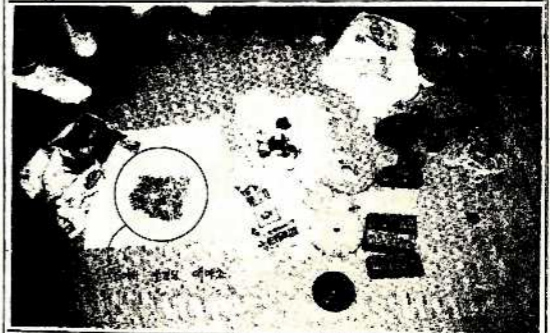
요소하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택가 범여지고 있는 시간에 조서를 꾸민답시고 신문에만 치중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보여 20여명의 강패들이 달아나도룩하였다.

지난 몇개월 동안에도 주민들에게 폭력과 매머를 일삼는 폭력배들을 소탕해줄 것을 무엇이 진정하였으나 묵살하여 사택가 이 지경에 이르러한 장본인인하나라는 점에서도 성북서는 그 책임을 회피할수 없다.

이날 강패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들의 속소에서 발견한 폭력배들의 장부를 보면 10월 9일과 그 이전에 수없이 이루어졌던 돈암동의 폭력사태는 재개발조합의 철저한 조종하에 치밀하게 조직된 조직적 폭력임을 알수있다.

철거계약: 이들 조직폭력배에게 지난 6월부터 지급된 활동자금이 세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이며 총 4억 4천만원에 철거계약이 이들 폭력배와 재개발조합간에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있음 전입신고: 원래 재개발지역에는 전입신고를 안한데도 89년 3월 부터 지역에 들어온 30여명의 강패들을 동사무소에서 전입 시켜줌. 이와는 반대로 주민에게는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겠다고 동사무소에서 협박.

우리 서철형 형제들은 우리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아온 이러한 살인테러와 폭력적인 강제철거에 분노하며 이제 앞으로 더이상의 우리 형제들에 대한 테러나 폭력, 그리고 강제철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생존권쟁취의 그날까지 함하게 투쟁할 것이.



돈암동 살인적 폭력사태에 부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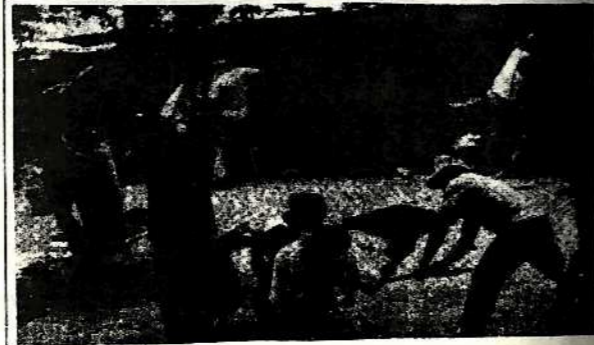
### 투쟁하는 철거민이 살인폭력 끝장내고, 철거에서 해방된다!

4/18으로 무장한 군인과 철거강제의 합동작전으로 진행된 8월 31일의 남현동 강제철거와 돈암동의 피비린내 나는 참상은 제5공화국 제6공화국에서 날이 갈수록 간악하고 잔악해지는 강제철거의 폭력성에 치가 떨리는 분노를 금할수가 없다. "보통사람 보통시대" 정의사회구현 "복지사회"를 주장하며 우리 도시민들의 한표를 호소했던 노동운동권에게 지행되어야 하는 이 극악한 살인적 행위는 무책임한 도시개발정책에 도시민들의 측근에 대한 생존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것이다.

더우기 5월 이후 "민생안정" 운운하던 "민생합수부"는 각계각층의 정당한 민주화 요구와 생존권 요구를 좌경으로 몰아부치며 탄압했고 철거지역에서 조직폭력배들의 온갖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는 폭인, 오히려 조장하여 왔다. (강제철거 현장에 관할경찰서 형사와 전경들이 반드시 동원되어 폭행당하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호소하면 번번이 외면해 왔다.)

가장게 88년 사당2동의 살인적 강제철거(주민 20여명이 중상)와 관악서의 비호가 그랬고 지난 9월 돈암동 폭력사태와 성복서의 비호가 또한 그렇다. 결코 우연이 아닌 사안에 그리고 오랫동안 재개발조합과 성복서의 결탁에 의해 저행되어온 돈암동의 온갖 폭력 참상을 보며 우리 서찰형 형제들은 정당한 생존권을 짓밟으며 더우기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는 극악한 폭력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단호히 투쟁해 나갈것임을 선언한다!!

가, 형제여! 짓밟힌 우리의 두손을 높이 모아 반압의 사슬을 끊어주세요!!!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준확정」 발표에 따른 우리의 입장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준확정 가족수·가구주 나이 등 5개항 종합심사

중계단지 시범리용	(입주자 선정 기준)
서울시는 12일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 오는 11월 중계단지 6개 40가구의 임대리프트 분양 때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방 1개 당 5명 이상 18
이 기준에 따르면 6평 1개당 가족수 스가주 나이 스거주기간 스가족수 스가구주 구성형태 등 5개 항목별로 5~20점까지 점수를 매겨 합산점수가 높은 가구에 우선적으로 임대리프트가 분양된다. (표 참조)	방 2개 당 5명 이하 15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1인가구, 노원구 이외의 거주자, 서울시내 5년미만 거주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방 3개 당 5명 이하 12
한편 보호대상자 가운데 의료부조자의 소득수준 이하인 가구에 한해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는다.	방 4개 당 5명 이하 10
	방 5개 당 5명 이하 8
	방 6개 당 5명 이하 5
	방 7개 당 5명 이하 3
	방 8개 당 5명 이하 2
	방 9개 당 5명 이하 1
	방 10개 당 5명 이하 0

지난 12일 서울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 중계단지에 시범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12일의 서울시의 발표는 지난 5월 발표와 발반 다른 것이 없이 방1개당 가족수, 가구주 나이, 거주기간, 가족수등의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대로 분양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찰형 형제들이 5년여에 걸쳐 강제철거에 맞서 투쟁해 오면서 우리는 주거근대화를 요구해 왔으며 주거근대화 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과 철거민에게 영구임대주택 보장, 선입주 후철거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선정에 있어 철거민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거나 없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그동안 우리는 건설부, 서울시, 청와대등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선정과 관계있는 모든 기관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건설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건설부에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왔으나 도마시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선정에 있어 우리 철거민들에 대한 한미디의 언급도 없음에 우리는 또한한 기권할것을 용감히한다. 재개발과 함께 모든 형태의 철거로 위협받는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해탈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구임대주택을 보장하는 것 뿐이며 그렇지 않으면서 도시 서당동과 돈암동의 폭력사태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수 밖에 없으며 철거민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는 것이다. 이에 우리 서찰형 형제들은 다시 한번 영구임대주택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 故 정상률 열사 도시빈민장



노태우정권엔 철거하자!  
살이치러가 자해하는

임대주택 재취하자!  
역사의 뜻 이어받아

일 시: 1989. 2. 22(수) 오전 10시  
장 소: 돈암동 넓은마당  
주 최: 도시빈민 공동 투쟁위원회 전민연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서울지역 총 학생회 연합  
주 관: 동소문. 돈암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 |   |   |
|---|---|
| <p>제 1 부 영결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향</li> <li>빈민 의례</li> <li>영결예배</li> <li>사망경과 보고 (주민 김인수)</li> <li>대표 조사: 장례위원장 이태교 (돈암, 동소문동 세입자 대책 위원회 회장)</li> <li>조가</li> <li>추도사: 장례위원장 대표 고광석 (서울시철거민협의회 회장) 김희선 (서울 국본 위원장)</li> <li>가족 대표 인사</li> <li>운구</li> </ul> | <p>제 2 부 운구 행렬</p> <p>넓은마당 → 우촌 국교 → 선홍사 입구 → 성신대 전철역 → 성복서 입구 로타리</p> <p>제 3 부 노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가</li> <li>추도사: 양연수 전노련 회장 전민연 대표 서충연 대표</li> <li>돌아가신 빈민형제 호명: 김정의 서찰형 부회장</li> <li>투쟁가 합창</li> <li>구호</li> <li>장지 출발 020332</li> </ul> |
|---|---|





3) 관련 자료

- 전농3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전농의 외침(1호-4호), 1988.4.6-8.6.
- 전농3동 세입자 일동, "급" 전농의 외침-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1988.
- 전농3동 세입자대책위원회, 단결만이 살길이다!, 1988.4.10.
- 서울시철거민협의회, 전농동 형제 여러분께 드립니다, 1988.6.23.
- 서울시철거민협의회·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독점재벌 우성건설의 살인철거를 규탄한다!, 1988.6.26.
- 농성주민 일동, "현재상황", 1988.
- 전농3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속보 '백여명의 철거반원을 동원한 강제철거와 주민구타!!', 1988.7.

민대주택쟁취까지!!  
도시빈민연주소

전농의 외침

총 1호  
1988년 4월 10일  
전농 3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자!

"이대로 물적설 순 없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세대위」 임원진 구성, 4월 10일 총회 개최

남쪽에서 하나, 둘 끊임없이 터져서 많은 어느 세 우리 주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두꺼운 계단들은 촘촘 벗어터지고 산뜻한 문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거둬 놓은 벗어터진 시멘트처럼 굳어 있습니다. 단란할 거리를 꾸리기 위해 가장으로서, 무엇보다도 정신없는 때 낙박한 같은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젠가 철거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철거되기 전에 부지런히 돈을 모아 이사를 가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 잊고선 언젠가 벌써 하나, 둘씩 집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일로 좀더 큰집, 아니 하다 못해 지금과 같은 월세방이라도 이사를 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소박한 꿈은 선거 이후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 집값, 방값 앞에 한없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책없이 할애했던 수고 받았던 때, 어느새 빈집, 무수한 집은 눈여막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박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몇몇 사람이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한지리에서도 찾아가 그곳은 어떻게 하나 물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바로 우리같은 철거민들이 그곳도 넘는 들내에, 시들 시들 사방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중에도 도화들 같이 강제철거가 되는 곳도 있었고, 신일동에서 외 같이 세입자들이 단결하여 세입자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막대한 가슴에 희미한 빛이나도 반전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소식을 듣어도 가만히 있는데 대책이 마련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지역은 세입자들끼리 '세입자 대책위원회' 라는 조직을 만들어 재개발 포함, 구형, 시형에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세입자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단결된

힘으로 권리를 요구하자. 가장 고등에서 5백만원의 보상을 제시하기로 하고, 오공동 - 을지로 - 삼남 2동 약 35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것입니다.

처의 몇몇 사람은 우리도 단결하면 어떤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리들과 맞서서 살기 위해서는 단결만이 살길이다. 전농 3동에서도 '세입자 대책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 전농 3동도 다른 지역의 철거민 형제들과 같이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찾아 봅시다.

이제 우리의 '세입자 대책 위원회'로 만들어 지게 되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만이 유일한 방편임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주민께 드리는 글"

나는 오늘 전농 3동 세입자. 몇분과 같이 항쟁에 있었다. 항쟁을 임한 몇분과 찾아 만나서, 말을 들이 보. 열사. 항쟁을 성공진성이 들어와 동업한 주민들을 비롯하여 정. 대. 동. 협. 주민들을 모았게 하였다.

항쟁을 세입자는 끝까지 맞서 싸운 16세대가 눈이 들어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데 동대문 구형 철거민들이 살고 있는 빈집처럼 철거해서 전 세입자들이 들레를 구원에 넘어가 이틀간의 농성은 빈민 결과, 천막비 200 여원 숙박비 20 여원을 받아 배어 그자리에 다시 천막을 치고 농성을 강행 한적이였다.

항쟁을 주민 세입자와 서울시 전지역 철거민들이 모여 단합비행과 함께 및 트립카드와 동문들이 단결한 하면서, 음성과 손으로 싸우며 싸우면서 가두시키는 벌이고 있었다.

나는 거기서 우리 전농 3동 세입자들도 단결하여 항쟁과 같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전농 3동 세입자 여러분!

조금도 굽보하지 말고 우선조합만 세워 우리와 생존권을 찾읍시다. <전농 3동 세입자부여> 2/115

301

### 세대위 결성 경과 보고

지난 수월 3일 (일) 7번지 연구실 공터에서 전농 3동 주민 모임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난하지만 셋방살이에도 만족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재개발을 할지며 조합원들이 선처에게 전거지 및 하여라도 있는 사법승계권 서로 도락주는 정다운 이웃들이었지요. 재개발을 할지며 재개발 조합 사무실이 이 동네에 들어서고부터 초나하지만 무척이나 우리의 남승자권 위협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직 관여도 없는 우리에게 허구에도 명백한 많은 비개발하는 독촉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까?

그러나 거짓 내년도 될 수 없는 기막힌 땅 환경 임주권으로 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할 땐 주민들이 모여 나온다면이 아닌 우리 공동의 결을 진지하게 의논하고, 서로 걱정해 주면서 모이게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개발로 인한 피해자가 우리안도 이따 같은 것 알게 되면서 「서로서로 철거민 협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기거이 우리의 이름을 같이 하신분들께서 우리 지식을 알릴해 주셨고, 관심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 전농 3동 세입자 단결 만세! 만세! 만세!

조여오는 불안함을 면치 않고, 모든 주민과 함께 구리의 전농을 할어야 한다고 지난 12월 12일 주민모임이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절박한 마음을 자기네들의 잇속을 차린 채로 재개발 조합장과 우선권협회는 40여명의 순회한 강연회를 권하여 회담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양해할 수 없는 우리 주민들은 단결히 그들에게 우리들 모임을 양해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총격에 대비까지 했습니다. 술먹고 만마약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강대들도 우리 주민들의 거세에 눈치 챌고 우리를 배고 뺏아내려 오겠는데 할기까지 보내도 좋고, 강대도 물어내고, 게다가 우리는 「전농 3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임명까지 선출하였습니다. 이제 더이상 힘없고 돈없는 세입자가 어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이웃이 있는 당당한 전농 3동 세입자가 될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속에 오랫동안 생기를 되찾은 주민들은 「전농 3동 세입자 대책 위원회」 「만세! 만세! 만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주민소식지를 내면서.  
 - 주민소식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이라 부족하기 짝이 없으나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채워질 때, 더욱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전농 3동 세입자 대책 위원회」와 여러분의 권리와 함께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 여러분의 글도 받습니다  
 연락처 266. 8391

###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재개발 조합에서 준다는 말(1년 임주권도 비개발이 이상할 격정이나 하고, 또 땅을 많이 돌려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의 밤낮은 예전과 다를 것이 없었고, 또 날이 갈수록 거꾸 오르기만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똑같은 임주권인데도 분자하고 나는 등대에서는 300~400만원씩 하는 땅지가 유독 우리동네만 100, 150 사어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움직이지 못했고, 또 개인적으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역주민으로서 등당 혜택을 받아야 될 사항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권거권을 우리 스스로 포기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단결된성 천거임 혜택같은 것들은 매간 대화며 언제까지나 격정과 함으로 지세는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할다면, 우리의 뜻이 하나로 모이면 할다면 우리 전농 3동 주민들은 권거적인 주거대책은 보장 받을 수 있고 최소한 다른 동네만큼의 보상수준은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입자 대책위원회로 우리 각자의 몸과 머슴을 모아 우리의 생존권을 되찾아 받읍시다.

### "가짓거, 우리도 모여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저를 모셨거예요. 저는 오늘 이층집 앞에서 세입자들이 모여 왔다가에 갔었어요. 뒤에서 남이 알아볼까봐 슬라시리 모임을 지켜본 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뻐했습니다.  
 우월은 지만같은 전농 세입자 현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흥성, 경악이 잡아까지 왔을 까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보다 먼저 천거는 당해, 이따 어 더했다는 명쾌한 창신등. 연모등 천거현이 나타나 하시는 여기에 저도 모르게 "맞어, 맞소?" 하는 소리를 지는 한 했어요.  
 마음속에 팽막한 영이 무엇인지 꼭 잡아는 번뜩번 하는 거예요. 과부사정 출애비가 안다는 땀처럼. 우리 전농을 천거면 사정 천거민이 딱 양태하구도. 또는 늘렸어요. 근세 우리 「전농 3동 협회」라는 구지 모를 천거민이 단결할 우리의 조직이 있다는 것 알고요. 그리고 여러 천거지역에는 벌써 「세입자 대책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함께 싸우는 것이예요. 그분들이 땀땀하고 남방 하게 말씀하시는데 밤새 불참고 여가하고 달려나구.  
 그래서. 우리 전농 세입자는 뭐 똑똑히 모자나고, 무능력한 천거민이라고? 남들 다하는 일 우리나고 못하겠는 생각이 들어요. 못해서 못하 것 뿐이지요 "가짓거, 우리도 모여봐요" 생각이 바가드. 우리도 한자리에 땀처럼 단결할 가슴 확 터지고 여가하면서 뭐나도 한번 해봐요? <동네 아줌마 편지>

"강제 천거 막아내고 임대주택 쟁취하자!"

# 전농의 외침

소식 2호  
 1986년 4월 16일  
 전농 3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발행.

## 세대위로 결집하여 임대주택 쟁취하자!!

방한만 임주권은 우리의 대책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임주권을 받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야,"

← 수월 10일 (일) 주민모임에서 「강철같이 단결하세」를 부르며

전농 3동에도 세입자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몇몇 주민들의 움직임에도 재개발주에서는 약탈하게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열한 행태를 보면서, 우리들은 더욱 단결해졌고 그들을 몰아내면서, 우리들의 방향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합당한 권리로 당면의 나오게 되어있는 방한만 임주권을 내주는데도 "튀기하라." "튀기중명 서술을 때워라." "살던 방의 구들장을 뜯고 다라." 등등 사시리를 조건을 거는 하다면, 4월말까지 안받아 가면 그 이후로는 못받아간다는 허무맹랑한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었지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이 명성을 고쳐 일만 하여 살아온 빈민들이라고 우뚝게 보고 버려진 수작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세입자 대책위원회는 전농 3동 세입자들의 "권거쟁취"를 위해 재개발 조합, 우선권협과 단결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 왜, 우리는 "임대아파트"를 주장하는가?

재개발은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손두리쳐 짓밟아 버리는 극악한 돈벌이입니다. 18년까지 서울 시내 32개 지역이, 92년까지는 120개 지역이 재개발 됩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가난한 동네가 없어지는 게지요. 임주권을 받아봤자 호화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임주권을 팔아 200~300만원의 손에 쥐었자 오히려 방세를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생활하며 갈어나갈 수 있는 규모의 절기저리 임대아파트를 지으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기필코 쟁취해야 합니다!



<4월 10일 주민총회에서 임원진 소개를 하며>

### 다함께 불러보세요.

누굴 위한	철거민가
누굴 위한	재개발인가
복우민들	환장하고
철거광대	발광하네
우리들도	인간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단결하세	단결하세
강철같이	단결하세

### 알려드립니다.

세입자 여러분!

우성건설과 재개발 조합측에 속지 마시고 세입자 대책위원회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자 대책위원회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할 것이며, 세입자 대책위원회에 가입해 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세대위를 통한 활동으로 보다 나은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잠금 3중 세입자 여러분!

조합측에서는 우리 세입자를 기만하고 있으며 분열시키기 위해 4월 30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입주권도 없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여러분, 조합측 농간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조합측과 싸워나갑시다.

1. 세대위에 가입하실 분은 주민등록 등본 1통씩을 때어 특별 책임자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우리 전 세입자의 목적은 임대아파트를 지어 20년~30년 상환으로 월 4만~5만 불입을 하며 살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재개발을 하려면 우리 세입자에게, 이 지역내에 임대아파트를 먼저 지어준 다음, 하라고 요구합니다.

<세입자 대책위원회 임원진 인동>

### 잠깐만!

요즘 동네에서는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가옥주가 세입자를 내쫓고 입주권을 가로채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개발” 이 여러사람 방치는 꼴이란 원... 그리고 여러분께서 문의가 들어오셔서 알아본 사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가옥주가 이사가고 세입자만 살고 있어도 단수, 단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난 지 1개월전까지 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입자에게 입주권(발판권) 권리가 있으며 세대구성이 안되어 있어도 히구비율,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48-0307. 임강철 (홍보부장) 님으로 연락하십시오.

### <이번 주 행사>

▲ 4월 17일 (일)  
전 교수점 옹터에서 세대위 현명식이 있으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소식 3호

(1)

“갑거리에 살 수 없다  
임대 주택 쟁취하자!”

# 전농 외 외침

소식 3호  
1988년 4월 30일  
전농 3중 세대위 발행.

## 생존권을 찾는 그날까지

## 단결된 투쟁으로!!

“5월 1일 오후 4시 주민총회 갖기로”



→ 4월 17일 현명식을 갖고.



→ 임대 아파트를 쟁취하자!!를 외치며, 조합으로.

세입자 대책 위원회가 창설 행진은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4월 17일 (일) 현명식을 가지면서 세대위 사무실을 정하였고, 함께 나아가는 결의하면서 재개발 조합까지 행진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고 비웃던 그 많은 조합원들이 겁에 질려 뺨소니를 쳐버렸습니다. 4월 25일 (월)에는 우성건설의 모델하우스 개관식은 우리 주민의 힘으로 막아내었습니다. 세입자의 대책없이 재개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합측의 사정으로 모델하우스 개관식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하는데 그 사정이 무엇이든 우리 주민들이 다 압니다. 바로 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강하고 무력한 힘이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는 “단결된 투쟁, 예민이 됐다는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개발 어떤 준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기쁘고 막아낼 것입니다.



단결된 힘이 왔든 한,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야!

← 모텔하우스 앞에서.

### 모텔하우스 농성 경과 보고.

갑작스레 모텔하우스 개관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앉아있던 주민들이 부랴 부랴 모였습니다. 전선도 거르면서, 자는 아귀를 든채이고, "대책없는 재개발 절대 반대!!"를 외쳤지요. 약삭빠른 조합측은 모텔하우스를 걸어잠그고 다 도망가버렸지만 그대르 풀러낸 우리가 아니지요. 조합장과의 공개면담을 요구하여 모텔하우스 앞에 전을 치고 농성을 하였습니다. 노래도 부르니, 구호도 외치고 해가 지면서 졸도 가져왔어도, 몇날 몇일이나도 조합대론가 나타나지 않으니 거기서 삼 각으셨으니카로. 뒤늦게 나타난 조합대론가 수권말까지 이주해야 주겠대어 입주권 혜택기반을 던지란 것과, 자적미달의 세입자에게도 입주권을 주도적 고려하겠다는 약속은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입주권도 아닌 입주권으로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간 재개발 조합의 일방적인 입주권 자적 반기와 기강을 우리 권에 의해 고치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승리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재개발 조합측도 앉았을 겁니다. 단결된 전농 3동 세입자들 때문에, 자기에 할부도 입하기는 언형 힘들어졌다는 사실은요.

### 새로운 출발

나날이 새로이 발전하는 '전농 3동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위해 조직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총무로 수고하시던 박동의 씨를 대외 부회장으로 이영우 씨를 총무로 보강. 세명의 부회장님을 모시고 각 부를 체계적으로 짜놓았습니다. 대외부회장 밑으로 대외부 교육부가 있고, 내부부회장 밑으로 홍보부와 조직부, 여부회장 밑으로 총무부와 계획부가 활동하게 됩니다. 각 구역별로 비상 연락망은 조직, 신속한 연락을 꾀하였습니다. 전속적인 세입자들의 활동으로 새조직에 생명력 불어 넣어 주십시오.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투사의 아들이다.

### 행나

5월 1일 (일) 오후 2시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계획과 앞으로 우리의 방향을 함께 모여 고민해 봅시다. 장소 : 세대주 사무실.

## 금.. 전농의 외침 (지호)

###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들은 가난하면서도 평화롭고 따뜻한 인정으로 뒤 영켜 살고 있는 전농 3동 재 개발 지역의 달 동네 사람들입니다. 생존권 까지 외면 당하여 노.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길거리로 쫓겨 가야 할 냉혹한 현실 앞에서 빈민 생존에 대책없이 편법으로 만들어진, 서울시의 재 개발 사업 지침 사정을 추구 하며 우리들의 생존권 보장을 확실하게 마련해 줄것을 강력 하게 거듭 촉구 합니다.

## 결 의 문

1. 우리들의 생존권을 재 개발 조합과 건설회사 그리고 당국에서 전폭 보장 하라!
  2. 우리의 정은 지역에서 노.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도록 하지 말라!
  3. 우리에게 방 1칸 입주권 (딱지)은 강제 이주시키려는 기만 술책이다!
  4. 관계 당국과 건설회사, 재 개발 조합은 저렴한 소규모 임대 주택을 시공 하여 이 지역 세 입자에게 임대 분양 하라!
- \* 우리는 지역에 맞는 저렴한 임대 주택을 쟁취 할때 까지 투쟁 한다!

전농 3동 세입자 일동

분양권은  
필요 없다.  
임대주택  
쟁취하자!!

# 전농의 외침

발행처 : 전농 3동  
세대의  
발행일 : 1988년  
8월 10일

## 결코 여기서 범출소 없다!



### 전농3동 주민여러분!

우리들은 더 이상, '화해의 울림'이나 '세대의숙제'나 하고 떠돌아다니는 허울좋은 울림의 희생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세입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것은 진정 평화롭고 정당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지난 7월 26일, 우성건설주는 포크레인 2대와 철거장패 10여명을 동원하여, 우리들의 정당한 활동공간이었던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아원이놀이방 수전정기 한방의 강제철거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에 항의하는 주민에게 입에 담을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퍼붓고 집단폭력을 행사한 악질 재벌기업 우성건설의 만행은 실로 파멸적이며,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날 철거장패에게 주민여러분이 구박당했고 강행력사와 한자용서 등이 전지 2주석의 부상을 당했으며도 불구하고 치료보상은 커녕, 도리어 자진철거를 강요한 것은 상식을, 하위전안식을 품어서 마치 세입자에게 맞은 약 살방 고소를 하는등 아이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  
우리는 장패를 동원한 강제철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협화음에 거두어 버리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따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세대의숙제를 부술수는 있어도 우리 세입자대책위원회 정체를 향한 끝없는 투쟁을 부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단결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난것이 아닙니다. 아직 끝낼라지 않은선분이 있다면 다시 모인시다.

폭력철거에 굴하지 않고 임대주택 쟁취의 2남까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합시다.

← 7월 26일 강제철거 장면.

**어린이** 김연진 (배봉국로 4)  
- 1988년 7월 26일 일기중에서  
우리 동네는 철거동네이다. 그래서 무된 강패들이 무더기로 온다. 그런데 모는 못것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도 힘 달는데 까지 싸웠다. 어른들도 우리들과 같이 싸우셨다. 하지만 무너진후였다. '놀이방'도 무너졌다. 화났다.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 무된 철거강패들을 다구 때리고 싶었다. 경찰아저씨들이 오셨는데 강패들이 경찰 아저씨들도 다구 때렸다.

김은정 (배봉국로) 7월 일요일 날씨: 맑음  
제목: 놀이방  
아들은 철거하는 아저씨들이 왔다. 철거하는 아저씨들은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모든 빈방을 부셔버렸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방도 부시고 우리놀이방 선생님도 때렸다. 나와 현진이 어머니는 참다못해 철거하는 아저씨들과 싸웠다. 나와 현진이 어머니가 싸우고 있는데 어떤 철거하는 아저씨가 우리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해! 하고 우리에게 소리쳤다.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났다. 그 아저씨들은 김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됐다. 나는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렇게 드러운 것으로 변돈이 좋을까 생각되고 우리 세입자들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을까 궁금했다.

### 전농동 소식통

- 어린이 놀이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구) 세대위 사무실앞에 작은 천막집을 지었습니다. 예정처럼 매주 화무목요일 오후 2시 ~ 4시 까지 운영됩니다.
- 우리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위해 경희대 한방건강일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10시 까지 정로. 건강상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장소 한 장성시역: 246-2018 )
- '전농의 외침'은 우리세입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세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세입자 대책위원회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번호는 246-2018 입니다
- 어린이 놀이방 운영을 위해 후원을 기다립니다. 구좌번호 (기업은행) 123-13-0019-191  
예금주 한 재 동

## 생각해 봅시다!

### 1. 분양권은 어떻게 나오는가?

현재, 세입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분양권도 87년 5월부터 세입자들의 법정권리로 시행되고 있는 세입자 대책입니다. 목동·상계동등 수많은 철거민들의 투쟁속에서 확보된 성과물입니다. 비록, 발급은 재개발조합에서 할지라도 그것은 세입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당연한 의무수행일 뿐입니다.

### 2. 분양권도 무효가 될수 있는가?

현재, 재개발 조합측에서는 "7월 30일, 혹은 8월 15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그나마 분양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분양권은 결코 무효가 될수 없습니다. 조합은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지급할 의무가, 우리는 그 의무수행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의무와 권리관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분양권은 결코 무효가 될수 없습니다.

### 3. 분양권을 신청하고 싸워도 됩니까?

분양권을 신청하고 싸우든, 신청하지 않고 싸우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이주한다는 조건으로 신청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끝나면 그집에 현해서는 강제철거를 들어와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즉, 분양권 신청은 강제철거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분양권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워야 합니다. 만약, 이미 신청을 한 분이 계시다면, 취소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 진정 이주해야 할 때, 다시 신청하십시오.

※ 앞으로 계속 우리 공동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자 합니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면 건의해 주십시오.



### 백여명의 철거강패를 동원한 강제철거와 주민구타!!

-우성건설의 살인철거를 규탄한다.-

애국 시민 어려본

7월 23일 권농동 세입자대책위원회와 안양대 학생들은 철거의 불안과 그 통속에서 어린자식들 만이라도 건강하고  
항목에 차라나게 하기 위하여 권농동 어린이 놀이방을 만들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과 우성건설은 바로  
이튿날 어린이들의 놀이방마저 철거를 하더니 7월 26일에는 오전 10시경부터 철거 광채 100여명과  
포크레인 3대를 동원하여 주민들이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인의 장벽을 치어 우리주민들의 건강안 살인 세대의  
사우실을 쓰러트리고 이를 저지하는 아주머니와 젊은 세입자 아가씨에게 철거강패들은 온갖 욕설과 폭행을 일삼  
으며 온종일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우성건설 원주임에게 터밀러 주민 강행에( 어 26 )씨가 머리가 깨지고 팔에 타박상을 입었고 한  
재용 ( 여 25 )씨는 철거강패들에게 "어디를 안겨줄까" "옷을 확 벗겨 버릴까 보다"는 등의 욕설과 함께  
집단구 타를 당하여 지금 현재 사당의원에 입원중에 있으며 그외 10 여명의 주민들이 철거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였  
다. 또한 이를 지켜보던 주민의 폭행장면을 사진을 찍자 카메라를 탈취하기위해 다투는 데로 아구 잡이로 사람들을  
두들겨 패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주민들은 배롱파출소에 연락하였고 파출소에 간 철거강패들은 오러러 주민들한테 맞았다고 생  
태를 쓰며 철거과정에서 생긴 자신들의 자그만안 상처를 가지고 (손가락 골절 ) 진단서를 끊어 오기까지하고 엉뚱한  
장태를 보였고 배롱파출소에서는 부상당한 주민을 조사할때 있다하여 청양리 경찰서로 연행해 가는등돈없고 백업고  
선량하기만한 주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어려본

7월 20일 송파구 석촌동에서는 이른 새벽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비속에서 10여 가구가 전경과 철거민들에게 의해  
강제철거를 당하고 갈곳없는 주민들은 재개발공사 사우실에서 어린자식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7월 26일 권농동뿐만 아니라 대현동에서도 강제철거가 진행되어 아버지 한분이 중상을 입고 실신상태에 빠지기  
까지 하였읍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세계인의 축제라 떠들면서 올림픽이라는 명분으로 진정 이 나라국민의 생존권을 맘부로 짓밟  
으면서 여기 저기서 강제철거를 자행하는 것은 무슨 권리란 말입니까 외국놈 잘 보이며 한국인중의 생존권을 억면  
하는 처사는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가요 재벌기업과 복부인 배부른 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 그리고 강제  
철거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당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애국 시민 어려본 !!

연행 시행되는 합동 재개발은 단손이 집만 빼앗는 생존권의 박탈이 아닙니다. 돈을 벌수있다면 살인까지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살인철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철거강패들의 폭력과 재개발조합과 우성건설의  
기만적인 철거에 굴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보금 자리를 지켜내고 철거의 악순환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위해서라도 단결된임으로 투쟁할것  
입니다.

애국 시민어려본의 지지와 동참을 바랍니다.

※ 이렇게 합니다.

폭력을 사주한 우성건설 (247.5393) 과 권농 3 동 재개발  
조합 (246.4444)에 폭력살인 철거에 대한 항의 전화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

- 살인 철거 자행하는 철거강패 물러가라 !!
- 우성건설은 폭력사태에 사과하라 !!
- 살인철거 비호하는 청양리 경찰서는 각성하라 !!
- 우성건설은 부상자에게 치료비를 전면 보상하라 !!
- 강대동원, 살인철거 즉각 중단하라 !!



<놀이방 철거에 울고있는 어린이>

... 권농 3 동 세입자 대책위원 ...

## 5. 면목동

### 1) 지역 개요

행정구역상으로는 동대문구 면목3동 1,075번지에 속하는 곳으로, 1987년 7월 현재 가옥  
주 16세대, 세입자 40세대가 살았으나, 1988년 6월12일 현재 4세대만이 남았을 뿐이다. 일지  
는 다음과 같다.

### 2) 일지

1987년

4월 : 철거가 시작되어 가옥주 자진 철거.

7.19 : 세대위촉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런 말없이 찢음. 철거민들이 동사  
무소에 항의하러 감. 그러나 동장과 이하 직원들이 합세하여 집단 폭행하여 세대위 회장 안정  
남(여, 당시 38세)씨와 부회장 김호자(당시 34세)씨가 중상을 입고 입원함.

7.20 : 철거대상 가옥 129가구 중 74가구가 철거되었으며, 55세대가 남아 투쟁.

### 3) 관련 자료

- 면목동 재개발지역 주민 폭행사건 보고서
- 면목3동 철거민 일동,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1987.7.

# 세상에 이런일이 있는가?

우리는 면목3동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철거를 반대하여 현수막을 도로변에 걸어 놓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7월19일 4시부터 5시 사이에 한마디 통보도 없이 이를 떼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어 7월 20일 10시경에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항의하였더니 동장이란 사람이 우리 엄마를 벽살을 잡고 구타하여 일대 수라장이 되었는데 동직원들까지 합세하여 구타를 하는 바람에 엄마들이 삼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하 직원이 그랬다 하여도 중재를 말아야 하는 동장이 선봉장이 되어 연약한 엄마들을 구타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에 우리 철거지역 주민들은 분노하여 일어섰습니다.

주권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우리가 내는 세금에 의해 살아가는 동장이 주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은 아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폭력을 휘두른 상대가 연약한 엄마들이라는 때에 우리 주민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철거민의 서러움과 분노가 백골까지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사를 그냥 두고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주거대책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신 회장 부회장님의 벽살을 잡고 흔들며 "이 개같은 년" 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수없이 퍼부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우리 엄마들을 다시 동직원들이 무차별 폭행을 행사케하고 동장이란 적자(김상봉 면목3동 동장)가 엄마(안정남 38세, 김효자 34세)의 팔을 수근 내 붙이려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간 요하는 부상을 입혔습니다.

주민 여러분!  
주거대책 보장에 앞장서서 동네 주민들의 생존권을 해적해준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인간이하 취급하는 동장을 그냥 그대로 두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에게 사과는 커녕 오히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동장을 붙이내는데 우리 주민들은 한테 뭉침시다.  
이런 악질적인 동장이 우리 동네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기회에 뭉뚱뚱치 기필코 우리 단합된 힘을 보여줍시다.

- ☐ 폭력동장(면목3동 김상봉)은 즉각 주민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 ☐ 폭력동장은 5개신문에 공개사과문을 내라!
- ☐ 구청장은 폭력동장을 즉각 피면하라!
- ☐ 우리의 손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동장을 뽑자!
- ☐ 탈취한 현수막을 즉각 돌려달라!
- ☐ (탈취당한 현수막 내용)  
도시빈민 생존 압살하는 재개발법 철폐하라!

☎☎☎ 면목3동 철거민 일동 ☎☎☎

## 6. 대현동

### 1) 지역 개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서대문구 대현동61번지이고, 철거 고시 전에는 가옥주 676세대, 세입자 1,400-3,000여세대가 살고 있었지만, 88년 6월14일 현재 59세대가 남아 있었다. 대현동의 재개발도 역시 합동재개발 방식이고 럭키금성이(현 LG) 시공자를 맡아 15층 아파트 10동, 즉 25평형 450세대, 31평형 390세대, 45평형 60세대를 지어 총900세대와 상가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이 곳 철거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선대책 후철거', '장기저리임대아파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을 복지사회협의회에 기부하고, 복협은 그 댓가로 8억원을 상납하였으며 다시 복협은 공유지와 편의시설부지를 포함하여 성도개발에 매매하였다. 조합은 아파트 38채를 양도하기로 하고 성도개발과 계약한 것이었다. 특히 세입자의 점유, 개발권을 불인정하면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었다.

### 2) 일지

- 1985.12.23 : 재개발 고시.
- 1986.12.5 :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 1988년
- 4.17 : 세대위 구성.
- 5.26 : 상명여대 빈민장터 개설.
- 5.31 : 주민 46명이 임대주택과 고시 1개월 후의 미해당자에게도 동등한 혜택, 물, 전기 등의 편의시설 해결 등을 요구하며 구청 농성.
- 6.10 : 조합에서 기습 농성.
- 6.13 : 주민들이 단합대회 후 조합, 건설회사, 구청, 세대위간 4자회담을 강제하여 편의시설관련 요구를 관철시킴.
- 6.14 : 조합측에서 특수지역인 관계로 모든 세입자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다고 함.
- 6.26 : 공사의 야간작업이 강행되어 저지 투쟁. 목적 달성.
- 7.26 : 서대문 구청에서 농성. 전경에 의해서 해산.

- .10.7 : 재개발조합측의 사전 예고없는 강제철거.
- .10.15 : 강제철거에 대한 항의 시위.
- .10.27 : 남아 있던 11가구가 기거하던 천막 철거.
- .10.29 : 천막철거에 대한 항의 시위.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 1) 럭키개발(주)과 재개발조합측은 강제철거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 2) 가구당 6백만원의 이주비를 보장할 것. 3) 강제철거에 대한 물적보상을 할 것.

3) 관련 자료

- 대현제1재개발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 세입자 주민 드림, 진정서, 1988.5.30.
- 서철협, 대현동 중간 평가서, 1988.8.12.
- 대현동 세입자대책위원회, 대현동 세입자 총궐기 단합대회 리플렛, 1988.6.11.
- 서울서부민주시민협의회, 서부시민(창간호), 1988.11.19.

대현동 세입자

# 총궐기 단합대회

...임대주택 쟁취를 결의하자...



길거리에 살수없다. 강철같이 단결하여 임대주택 쟁취하자!!!

주최 : 대현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후원 : 서울시 철거민 협의회



# 노익순

## 제1부

1. 개회사

2. 빈민의례

1. 목적 (철거현장에서 숨겨진 형제들을 위하여)

2. 빈민의례

3. 소개와 격려사

4. 대현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성과보고

5. 결의문 채택

주최자

## 제2부

# 교사

## 제3부

# 경화행진

# 결의문

오늘 우리 대현동 세입자는 한목소리로 커다랗게 외칩니다. "겉기리에 살수 없다, 임대주택 징취하자!" 우리 대현동 세입자는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강철같이 단결하여 우리의 목표이며, 요구를 끝까지 싸워서 쟁취해 나갈 것입니다.

돈벌레, 집장사에 눈이 빨간 재개발 조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서울 시내 재개발 지구가 정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상책이 주어지지만, 대현동 재개발 구역은 특수지역이므로 모든 세입자는 절대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은 있을수 없다" 럭키금성 건설회사와 서대문 구청은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재개발 조합장이 잘알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겠다" 구청과 현정부는 재개발 구역으로 고시해서 땅장사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으니까, 럭키금성 건설은 하루빨리 아파트만 지어 팔아 먹으면 엄청난 떼돈이 굴러 들어오니까, 합동 재개발이란 명목아래 모든 책임을 재개발 조합에 떠넘겨 버리고 세입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특수지역 운운하면서 재개발 조합은 세입자를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기에 정부와 구청은 조합에 장단을 맞추며 우리의 실정을 완전히 파괴하려 합니다. 그간 천여 세대도 넘는 세입자가 이러한 서대문 구청과 럭키금성 건설, 그리고 조합측의 협박과 공갈, 능간에 넘어가 한푼의 보상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겨나고 집은 강제로 철거 당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갈곳이 없이 여기에 남아 있는 60여 세입자는 우리의 목표인 임대주택을 쟁취하기 위하여 다음을 결의 합니다.

첫째: 우리는 임대주택 쟁취를 위해 세대위를 중심으로 이지역에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급자리와 삶의 터전을 지키며 여기에서 우리의 목표를 쟁취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서울시 철거민 협의회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며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 빈민 형제들에게 받은 걸 배웠듯이, 앞서간 형제들에게 배우고 다른 지역 형제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권리를 함께 쟁취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요구와 주장이 합당도 정당함을 믿습니다. 세대 남의 동지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급자리와 생존권을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이상 참을 수 없으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강철같이 단결하여 함께 싸워 쟁취합니다. "강철같이 단결하여 임대주택 쟁취하자!"

1988. 6. 11. 대현동 세입자 대책 위원회

1월 - 상상 대신 가  
부자들 곁을 밟을 수리는 개이  
다리등 빈민 형제 쓸부 짓던 날  
숯가락 깨물며 맹세 히면서  
생존권 되치는 형제들이 있다.  
그절  
바운 태양 솟아 오르는 우리 대한동  
삼천리 방방 곳곳 빈민의 깃발이여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길  
참추며 싸우는 형제들이 있다.

- 상 단 절 가 송 -  
누굴 위하 철거민경, 누굴 위한 귀계발  
인카 복부인들 화강 리고  
철거 깃대 발광 하네  
우리들도 인간이다 더 이상  
참을수 없다  
단절 하세 단절 하세  
강철 같이 단절 하세

- 송 동 타 령 송 -  
돈돈돈 돈에 돈돈 악마의 금천  
잡들이 리고 잡순이 히고  
서로 사랑-히다가  
돈이 돈이 살다가 못살겠거던  
망고 푸른 한강수에 풍덩 빠져서  
내년 심혈 흥심월에 꽃피고 새가 울때  
당신품에 안기기적 날을 이소시

1월 - 상상 대신 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무껴  
세발이 울때 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같다.  
깨이 나서 되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기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기여 따르라.

- 송 민민의 노래 송 -  
1월  
나 태어날 이 강산에 빈민이 되어  
꽃피고 눈 내리길 어먼 삼십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강산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들 흘러간 내청춘  
산비탈에 뿌려진  
꽃다운 이내 청춘

그절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빈민의 아들이다.  
좋은 뜻 입고프냐 맛난건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빈민의 아들 이로다.  
3월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철거 없는 세상에서 오손도손 사는길세  
꽃피어 만발하고 활짝개 그날을  
싸우고 또 싸워서 반드시 이룩리라.

서부시민은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주민들의 힘이 결집돼 만들어 지는 신문입니다.

서부시민

판년국: 서울서부민주시민협의회  
판년어: 이 재 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417-30  
전화: 324-8995

창간호 1988년 11월 19일

추운겨울 집도없이 어떻게 하나  
대현동 강제철거현장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언제부  
터인가 도시주변의 산동네 말동네  
에는 도시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도시변  
명이 이 철거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는 언제일까.  
도시재개발은 도시민과 주민  
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지만 철거민들이 받는  
피해는 상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이 추진  
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민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71년도 “공  
주대단지 사건”은 이렇게 형성된  
민중내이다. 이 지역이 건설부로  
부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85년 5월 18일이었다. 그로부터 2  
년이 지난 87년부터 본격적인 시  
차원의 강제철거가 진행되었고 철  
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러키개발(주)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15층 아파트  
10동과 5층 규모의 상가 1동이 건  
설될 예정이다.  
전월 중헌 재개발에 의한 강제  
철거는 이 지역에 20-30년간 살아  
온 주민들, 그 중에서도 세입자들  
에게 적용은 피해를 안겨 주었다.  
철거를 하기 전에 가족주와 토  
지소유자의 경우 이주대책과 아  
닌 재개발을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부정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경·경찰서 등 편의 비호를 받는  
재개발조합이 수백명의 철거민  
원을 동원 강제철거를 함으로써  
여러차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지난  
10월 15일 재개발조합측이 이 일대  
세입자 50여 가구의 집을 사전에 고  
없이 강제철거한데 항의시위를 벌  
였고(이때 이화여대 학생들의 동  
조시위도 있었다), 10월 29일에도  
남아 있던 11가구의 철거에 대한  
철거에 밤을 지새며 항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기도 했다.  
1. 시공시인 러키개발(주)과  
재개발조합측은 강제철거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 가구당 6백만원의  
이주대책비를 지급할 것, 강제철거  
에 대한 물적피해를 보상할 것 등.  
대현동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은  
또 장기적인 싸움으로 더욱 아려  
워진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 10월  
22일부터 삼의 의견을 담은 현장에  
“철거라든” 집이라는 이색적인 중  
동의 일타를 마련해 이 지역을 지  
나가는 시민·학생들에게 유익의 공  
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도 가족주 10세대와 세입자  
11세대가 남아서 투쟁하고 있는  
대현동 철거민들은 시공시인 러  
키개발(주)측이 이들의 요구를 수  
용하여야 하고, 정부도 합동재개발

서부시민은 자신들의 권리인 이주  
대책금과 분양권을 요구하고 재  
개발조합측에 대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4월 ‘대현동 세입자 대책위  
원회(세대위)’를 조직하였다. 세  
대위는 개별적으로 재개발조합측  
과 협상하는 수완에서 벗어나 전  
체차원에서 재개발의 비합리성을  
폭로해 내는 역할을 해왔다.  
세대위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경·경찰서 등 편의 비호를 받는  
재개발조합이 수백명의 철거민  
원들을 동원 강제철거를 함으로써  
여러차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지난  
10월 15일 재개발조합측이 이 일대  
세입자 50여 가구의 집을 사전에 고  
없이 강제철거한데 항의시위를 벌  
였고(이때 이화여대 학생들의 동  
조시위도 있었다), 10월 29일에도  
남아 있던 11가구의 철거에 대한  
철거에 밤을 지새며 항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기도 했다.  
1. 시공시인 러키개발(주)과  
재개발조합측은 강제철거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 가구당 6백만원의  
이주대책비를 지급할 것, 강제철거  
에 대한 물적피해를 보상할 것 등.  
대현동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은  
또 장기적인 싸움으로 더욱 아려  
워진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 10월  
22일부터 삼의 의견을 담은 현장에  
“철거라든” 집이라는 이색적인 중  
동의 일타를 마련해 이 지역을 지  
나가는 시민·학생들에게 유익의 공  
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도 가족주 10세대와 세입자  
11세대가 남아서 투쟁하고 있는  
대현동 철거민들은 시공시인 러  
키개발(주)측이 이들의 요구를 수  
용하여야 하고, 정부도 합동재개발

이런 명목으로 몇천에 달하는 빈민을  
집을 찾아내는 사업이 되고 있  
음을 볼 때 재개발에 대한 정책적  
판이 더욱 현실함을 다감히 인식  
해야 할 것이다.



러키개발(주)가 동원한 강제 철거민이 주민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창간사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이라는 도시는 공룡과 같이  
서 이윽고리 오손도손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전부입니다.  
우리를 서부민주시민협의회는  
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즐거운  
이야기도 있고 서러운 이야기, 또  
는 분노를 함께 해야 할 이야기,  
더러는 아주 재미있고 풍성한 이  
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  
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남자들은  
술집에서 여자들은 혼자 먹거나  
하는 것으로 무뎠어져 버리기 때  
문에 사회적 간수족 사함과 사함  
사이의 담이 높아지고 서로가 불  
신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불신사회는 분단사태를 더  
욱 비극적으로 연출하는 독재정치  
의 부정과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어 급기야는 민주정치와 같은  
불멸한 인간이 한 시대를 공포와  
부패의 구렁으로 들어 내게 됩니  
다.  
시민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랜  
꿈틀에서 벗어나 함께 사고하는  
점이 흐르는 공동사회가 필요합니  
다. 이룩과 함께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롭  
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의 시대는 복잡다단하고 정치정환에  
의해사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  
가는 대다수 민중들의 실천적 삶에

우리의 목표는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사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서부민주시민협의회는  
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즐거운  
이야기도 있고 서러운 이야기, 또  
는 분노를 함께 해야 할 이야기,  
더러는 아주 재미있고 풍성한 이  
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  
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남자들은  
술집에서 여자들은 혼자 먹거나  
하는 것으로 무뎠어져 버리기 때  
문에 사회적 간수족 사함과 사함  
사이의 담이 높아지고 서로가 불  
신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불신사회는 분단사태를 더  
욱 비극적으로 연출하는 독재정치  
의 부정과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어 급기야는 민주정치와 같은  
불멸한 인간이 한 시대를 공포와  
부패의 구렁으로 들어 내게 됩니  
다.  
시민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랜  
꿈틀에서 벗어나 함께 사고하는  
점이 흐르는 공동사회가 필요합니  
다. 이룩과 함께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롭  
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의 시대는 복잡다단하고 정치정환에  
의해사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  
가는 대다수 민중들의 실천적 삶에

서부시민 창간 기념시

우리의 목표는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사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서부민주시민협의회는 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즐거운 이야기, 또 는 분노를 함께 해야 할 이야기, 더러는 아주 재미있고 풍성한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남자들은 술집에서 여자들은 혼자 먹거나 하는 것으로 무뎠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회적 간수족 사함과 사함 사이의 담이 높아지고 서로가 불신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불신사회는 분단사태를 더욱 비극적으로 연출하는 독재정치의 부정과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어 급기야는 민주정치와 같은 불멸한 인간이 한 시대를 공포와 부패의 구렁으로 들어 내게 됩니다. 시민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랜 꿈틀에서 벗어나 함께 사고하는 점이 흐르는 공동사회가 필요합니다. 이룩과 함께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롭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복잡다단하고 정치정환에 의해사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 가는 대다수 민중들의 실천적 삶에

### 7. 홍은동

- 홍은동 세입자대책위원회, 홍은동 영구임대주택 완전쟁취 보고, 1990.12.7 중에서  
“서철협 각 지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청년학생 형제 여러분!

먼저 동지여러분의 지원과 연대 속에서 홍은동 세입자대책위원회가 동소문, 돈암동 형제에 이어 두 번째로 영구임대주택을 완전히 쟁취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선포는 민중형제들, 특히 우리 철거민들에게 합법적인 테러의 선언이었습니다. 동소문, 돈암동에서의 폭력, 잠원동에서의 철거, 신대방동에 공권력의 투입, 그 외에도 목1동, 신정동, 도화동 등 수많은 지역이 철거와 구속, 그리고 살인폭력의 찬바람에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폭력과 억압의 쇄사슬을 끊어내며 한걸음 한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 지역에서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청, 한국건설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영구임대주택을 완전히 쟁취하였고, 선입주 후철거의 원칙에 의거하여 가수용시설을 전면보장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세대위 조직의 권위를 인정받았고, 영구임대주택 중심의 대책을 쟁취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건설입니다. 가수용시설, 즉 우리의 집은 우리 손으로 지어야 하며, 주민들의 단결과 연대활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질서가 요구됩니다. 철거저지투쟁, 재개발반대투쟁이라는 소극적인 투쟁에서, 우리가 만든 투쟁의 성과를 발판으로 보다 힘겹고 커다란 건설투쟁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활동을 반성하고, 철거투쟁의 전통과 서철협의 역사를 계승하면서 민중연대의 관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을 계획할 것입니다.(후략)“

### 8. 도화동 1공구, 3공구

#### 1) 지역 개요

제3공구는 행정구역상으로 마포구 도화2동이다. 철거 고시 이전에는 세입자 1,320세대가 살았는데, 1988년 6월12일 현재 29세대 130여명만이 남아 있었다. 이 곳의 재개발 방식 역시 합동재개발로 우성건설이 시공자를 맡아 24평형 이상 아파트 약1,10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이곳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주 대책을 세입자들의 생활수준에 맞게 시행하라는 것이다. 사건일지는 다음과 같다.

#### \* 도화3공구 일지

1985.3.4 : 재개발 고시.

1986.12.26 :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1987년

3.29 : 세대위 구성. 우종범 회장 마포서로 연행. 이에 세입자들이 마포서로 물러가 항의시위. 이를 뒤 우회장 석방.

4.15 : 세대위 사무실 강제철거. 세입자들 신속 복구.

6 : 6월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

7.3 : 조합장 김근태가 세대위 사람 10여명을 건물 불법 점유 죄목으로 고소.

7.12 : 조합장이 세입자 10세대의 점유권을 이전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냄.

7.13 : 계속되는 강제철거와 우성건설측 현장사무원의 세대위 사무실 감시에 항의, 현장사무실 습격으로 주민 5명 구속.

1988년

3.15 : 서철협 회장이자, 세대위 위원장이던 우종범씨에 대한 테러 발생. 우회장이 새벽에 귀가하던 중 피한에게 테러를 당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음. 서울지역 철거민 탄압 폭로 및 우회장 폭행 폭로 규탄대회 열림. 이날 경찰에 의해 129명이 연행되었으나 조사거부투쟁으로 밤늦게 모두 석방.

3.21 : 오전 8시 포크레인 2대와 철거반원 100여명이 예고없이 강제철거 자행. 조합장에게 이 사실을 항의하던 주민 29명 연행됨. 이러한 강제철거가 4일간 계속됨. 이 과정에서 김종석(32),

조갑제(42)씨 구속.

3.22 : 철거반원들의 폭행으로 유서봉(여, 50)씨가 척추다침.

3.26 : 철거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

6.12 : 정부고시가격으로 평당 70-80만원쯤 하던 땅값이 300만원에 거래됨. 조합측은 세입자들의 퇴거를 계속적으로 중용.

도화1공구는 행정상으로는 마포구 도화2동에 속하고, 철거 고시 이전에는 세입자가 1,200여세대가 있었는데, 1988년 6월12일 현재 490여세대가 남아 있었다. 이곳 역시 합동재개발 방식이며, 현대건설이 시공자를 맡아 15층아파트 24-56평형 총1,05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도화1공구 세입자들은 장기저리 임대주택 쟁취를 목표로 내걸었다. 일지는 다음과 같다.

\* 도화1공구 일지

1985.5.8 : 재개발 고시.

1987.5.8 :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1988년

1월 : 세입자들이 몰래 세대위 만들 준비.

1.31 : 세입자 모임을 끝내고 귀가하던 주민 2명과 기빈협 소속의 김성훈목사가 재개발조합장의 사주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함.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깡패 1명을 잡아 경찰에 넘겨 주었으나 경찰은 곧 깡패를 풀어 줌. 이에 주민들 항의하며 파출소에서 농성.

2.1 : 아침부터 주민들 100여명이 모여서 파출소에서 농성. 며칠에 걸친 철야 농성 끝에 조합장 이장우의 공개사과와 치료비 보상을 쟁취.

2.8 : 세대위 구성 및 주거대책쟁취대회 후 가든 호텔 뒤에서 경찰과 충돌하여 3명 연행.

3.18 : 우중범 서철협 회장 테러규탄대회 및 도화 3공구 강제철거에 맞서 싸움.

3.30 : 철거반원들이 빈 가옥을 철거하는 것을 막다 세입자들 다수가 폭행당함. 경찰은 오히려 주민들을 절도죄로 소환하는 등 탄압.

4.14 : 주민 100여명이 철거로 위협하게 된 집의 대책을 요구하여 관철시킴.

5.16 : 마포구청 농성. 철거의 잠정중지 약속 받음.

5.19 :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2차 마포구청 농성.

6.7 : 주민 100여명이 참여하여 3차 마포구청 농성.

7.9 : 현대건설 본사 농성.

7.11 : 현대건설 본사 농성.

7월말 : 1주일간 마포구청 철야농성.

2) 관련 자료

- 마포구청장,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결정 고시 통보, 1985.4.15.
- 가칭 도화 구역 제1지구 재개발 조합 공동 조합장 이장우, 주민 여러분 왜 단합해야 합니까?, 1985.6.
- 천주교빈민문제연구소, 마포구 도화동 지역개요, 1986.1.
- 도화2공구 추진위원 일동, 인사말씀, 1986.3.1.
- 마포구청장, (가칭)도화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회시, 1986.3.4.
- 주민총회소집통지서, 상동, 1986.4.20.
- 이장우-세입자대표, 공가철거 문제.
- 용산성당 청년회, 도화3공구 조사보고서, 1986.6.
- 도화3구역 재개발문제 개요, 1986.7.
- 이장우·김호천·김정숙·이순덕·김기호·김성훈, 합의문, 1988.
- 재개발 조합의 정체를 파헤친다, 『말』21호, 1988.3.
-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주민신문, 1988.3.22.
- 도화3공구 철거민 일동, 감사님께 진정드립니다, 1988.3.29.
- 도화1공구 세입자 대책위원회, 진정서, 1988.5.6.
- 유인물 및 기타
- 도화동 세입자,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 눈을 떠 보자!, 1986.5.
- 천주교도시빈민사목협의회, 도화동 세입자 여러분, 1986.11.5.
- 외부세력을 반대하는 선량한 세입자 일동, 원 세입자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 도화동 빈민 세입자대책위원회, 도화동 세입자 여러분, 1987.3.25.
- 천주교도시빈민사목협의회, 성명서-도화동 빈민 세입자 대책위원회 위원장 우중범씨 연행을 항의한다-, 1987.3.30.

- 민주와 생존권을 쟁취하고자하는 도시빈민, 노동자-학생은 석방하고 철거민 구속 웬 말인가, 1987.7.21.
- 철거반대 투쟁으로 구속된 세입자 5명의 즉각 석방을 위한 도화동 세입자의 입장, 1987.7.23.
- 도화동 세입자 일동, 도화속보, 1988.2.1-10.9.
- 도화1공구 세입자대책위원회(준비위원회), 세입자 이주대책 완벽히! 서울시에서 결정, 1988.2.
- 도화1공구 세입자대책위원회, 현판식 및 주거대책 쟁취대회, 1988.2.28.
- 도화1공구 세입자대책위원회, 철거로 인한 붕괴 원상복구하라, 1988.3.14.
-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세입자에게도 권리가 있다!, 1988.
- 도화1공구 세입자대책위원회, 이화여대 연세대와의 자매결연식 및 강제철거 결사저지 결의대회, 1988.10.9.
- 도화1공구 세입자대책위원회장, 자매결연 선서, 1988.10.9.
-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굳센 단결로 강제철거 분쇄하자!, 1988.10.9.
- 도화1공구 세입자대책위원회 서부지구총학생회연합, 도화1공구에서의 강제철거 실태, 1988.12.8.

길거리에 살 수 없다 임대주택 쟁취하자!	<b>도화속보</b>	1988. 2. 1. 도화동 세입자 일동
---------------------------------	-------------	---------------------------

# 재개발 조합은 강패집단인가?

## 도화동 1공구 재개발조합, 세입자 모임에 참석한 목사와 주민들 폭행·구타

1월 31일 밤 10시경 세입자대책  
모임이 끝나고 귀가하던 주민들이 조  
합측(조합장 이장우)에 의해 집단폭  
행 당했다. 특히 김성훈 목사(기독교  
도시빈민선교협의회 회원)는 대머섯명에  
게 에워싸여 허리 등을 심하게 짓밟혔  
으며 카메라가 든 가방까지 탈취당했다.  
주민 2명도 역시 무차별 맞았다.  
이때 조합장 이장우도 폭행 현장에  
있었고 직접 구타에 가담했다. 다수의

조합 이사들도 있었으며 경찰, 형사들은 뒷짐  
을 지고 폭력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었다.  
도화 파출소장도 무전기를 들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합장 이장우는 "나도  
여러사람 뒤통수 가본 사람이다. 너희도 힘  
이 있으면 우리를 때려봐라. 대화같은 것 만  
하고 주먹으로 하겠다."고 하는 등 강패인지  
조합장인지 알 수 없는 악랄한 언동을 보였다.  
주민들은 조합장과 파출소장 등을 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작정  
이다.

**도화파출소장 등은 폭력 비호!**  
**조합장 이장우 강패로 돌변!**  
**기민들, 파출소장과 이장우 등 고발예정.**

# 도화파출소에서 심야농성 세입자들, 조합사무실 항의농성



(도화파출소 앞의 세입자들)

세입자 50여명은 김성훈 독사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화파출소로 몰려가 다음날 새벽 세시까지 농성을 하였다. 주민들은 폭력을 휘두르던 강패 조합원 1명을 붙잡아 파출소에 넘겼으나 경찰은 금방 풀어주고 말았다. 주민들은 김 독사를 내놓으라고 경찰에 강력히 요청했다.

2월 1일 아침 10시 주민 70여명은 다시 파출소를 점거하고 폭행을 비롯한 파출소장을 규탄, 재개발 조합측의 폭력에 대해 즉시 외범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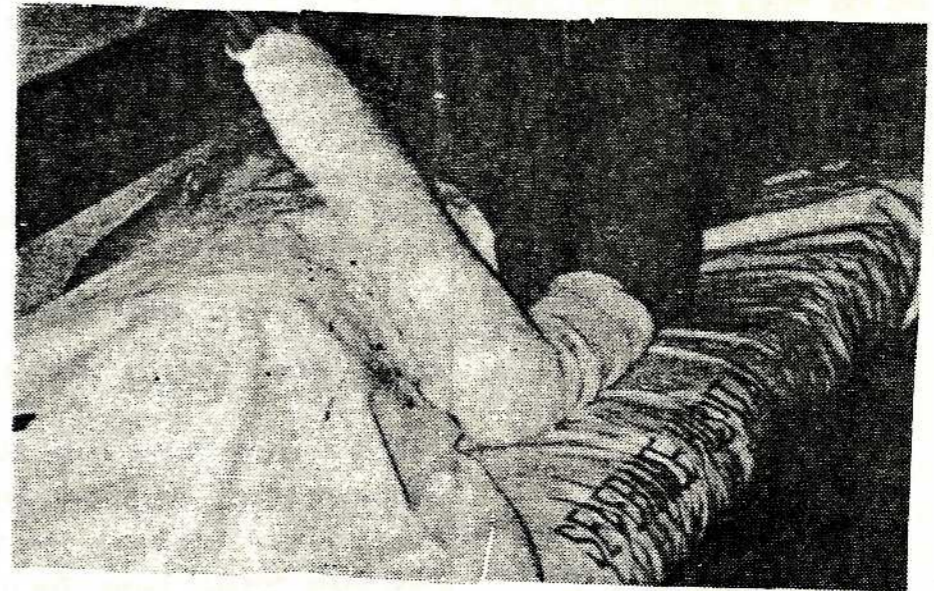
정오경 주민들은 가든호텔 건너편 신화빌딩 6층에 있는 도화1공구 재개발 조합으로 장소를 옮겨 오후 세시 현재까지 계속 농성 중이다. 주민들은 "이장우를 만나기 전까지 안 돌아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폭력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조합측 사람을 붙잡고 항의하고 있다.

(강패조합원(악은사람)에 항의하고있는 세입자들. →)



## 정부에서 인정한 세입자 권리 우리 손으로 기어이 쟁취하자!!

# 서울지역 철거민 탄압 폭로 및 우종범 회장 집단 폭행 폭로 규탄 대회 =



일자: 1988. 3. 19. 12시  
장소: 도화 3공구  
주최: 서울시 철거민 협의회

후원: 민통련·민청련·  
서대협·기반협  
천도반

# 총선 앞두고 철거민에게 폭행

총선 앞두고 전 철거 빈민들에게 야비한 폭행과 탄압이 야밤에 누가누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우리는 법원이 누가누가 잘 안다.

## 복사골 도화등에

### 밤이면 폭력·테러

3월 15일 새벽 2시 잠정한 골목에서 뒤어난 귀한 2명인 서철현의 무리장상을 하고, 뒷방아 반 주름의 상자로 만들어 놓았다. 이 귀한들은 미리 계획된 살인 테러를 당할 법칙은 감옥기만해, 30분 전에 동일 장소 부근에서 이루어 한 야구비 나쁜 폭행하길 치욕한 계산까지 해두었다.

이미 1월 31일 김성철 폭행·도화선인 임시·우승범 리장할 귀한 4명은 밤 11시경에 기습골 행진하려 했었다.

이어 2월 25일 도화선인 김혜순 부회장이 밤 11시경 새집과 출퇴근 마치고 귀가하던 골목에서 귀한 2명에 의해, 새집과 명부안 회 의욕을 발휘해있었다.

## 신림 2동에 야밤 기습 방화 사건

형상을 그리며, 건설회사, 주택조합, 구청과 새 대위 대위가 만나 대타하는 모습, 3월 16일 신림 2동 새집과 사무실에는 불이 났다.

불은 발견한 시간은 새벽 2시. 새대위 사무실 안에는 없었던 화재병이 개개 있고, 벽에는 기습 폭력, 그물음이 있었다. 화재병이 던져 진동 하나.

우리는 복정 선거로 새 대통령이 권좌되고, 제 6공화국이 새 정부로 출범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시기에, 다시 국회 의원 총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부나 구청·전두경관을 앞세워 노골적인 폭력을 휘두르기에 적들이 깜짝할 것이라 본다. 이 때 앞세우는 우리 순권화면서, 야밤에 들뛰어서 폭력·테러·방화사를 서슴지 않는 적 앞에 있다. 적들은

## 나무!!!

철거 빈민들은 야밤에 저지른 폭력을 무기로 삼았다.

## 창신동 대보름날

### 폭력 강제 철거

대보름을 하루 앞두고 창신동 천막은 기습철거에 반항했다. 무뎌진 안내라고, 야구비나들라 노인들이 행진이나 잔잔한 음식을 준비하던 폭력과 살상살상이 배부·해머로 짓어제지고 말았다.

구경 철거반역이 개박수와, 무력조합이 반항하고, 구청장은 자기가 선심사서 천막 부비 줄 것처럼 생뿔뿔이다. 그리고 창신동 형제들이 한 문타어 천막 부공사를 하느 있는 동안 수도와 전기를 끊어버린 항의하는 야구비나들 경찰서는 연방했다.

## 서울시 철거 빈민 형제들 어깨 짚고 일어서 전진!!!

3월 19일 12시!! 서울의 전 철거 빈민 형제들이여!! 맞이자 도화등으로!!! 총성을 앞에 두고 야밤에, 뒤쪽을 하고, 웃으며 뒤 돌아서 테러를 명령하고, 짓이겨 불내 사오 리즘 공포에 떨고 있을 수 없다. 미친놈처럼 살살 웃고 있을 수 없다. 강건너 불구경하듯 비바 볼수 없다. 깜짝 놀라고, 분노하고, 소주 마시며 잠들어 버릴 수 없다. 앉아서 기다리지만 있을 수 없다.

3월 19일, 4월 4일의 비타로 함치기 나가 가자!!!

서울시 철거 빈민 형제들이여, 어깨 짚고 함께 일어서 함성이 되어 함치기 전진 하자!!! 기필코 생취하는 7.4를 만들라!

죽인 지안 대책 수립하라  
폭력 방관 하는  
경찰은 각성하라

# 도화 속도

1987년 3월 16일  
제 1호  
도화선 세입자

# 북지옥가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날수 있던 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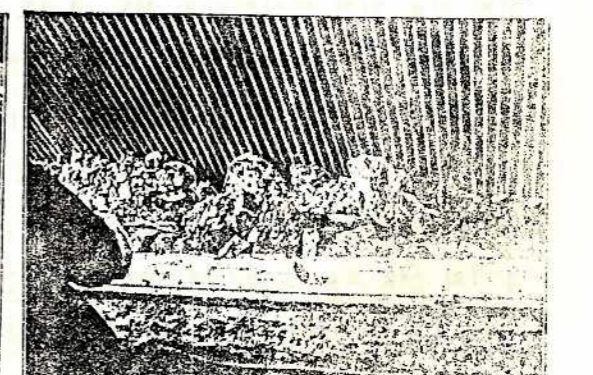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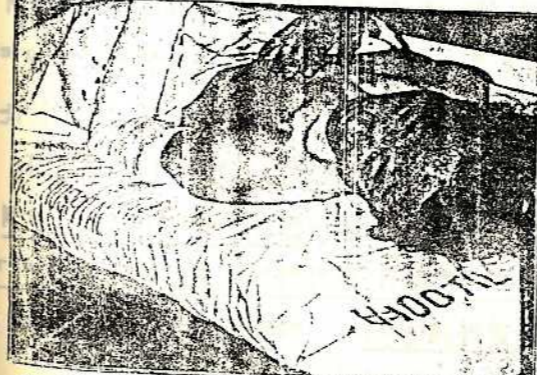
## 방관만 하는 경찰은 각성하라!

3월 15일 새벽 2시, 서철현 회장 우승범씨가 서철현 임원회(회장단)의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파출소 소장, 정보과 이형사와 환담을 나누고 귀가하던 중 점보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진 철거공터에서 30대 초반의 전장한 남자 2명으로부터 "죽어라", "죽어라"라고 외침속에서 귀타를 당하여 췌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왼쪽팔엔 기브스, 오른쪽 소과 5~6cm 찢어진 머리 앞쪽을 지혈하는 중상을 입었다.

그런 파면 누가 서철현 회장을 귀타하였는가!  
경찰측에 의하면 서철현 회장 소르가 다친 것이라고 방관적 예측을 하여 법적적인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

파면 북지옥가에서 이런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이 이 같은 테러로 불안하고 있는데 지안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기 방관적인 태도로 일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 세입자 대책위는 분노하여 강력히 귀탄한다.

## 이런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단이 말이 되는가!



< 중태에 빠진 현 우승범씨 > < 귀타당한 피물문 형장 >

# 노동자·학생은 식·방하고 철거민 구속 왜말인가

도화 3공구 세입자·가옥주 어러본!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당한 재개발로 인해 마침내 직업을 잃은 세입자 5명(박종길, 김중석, 이종근, 김한위, 김승씨)이 구속되고야 말았습니다. 재개발조합장 김근태가 거물 파괴, 폭행의 명목으로 고귀한 생존권을 지키고자 투쟁해온 세입자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올해들이 박종길군 주도 집회, 전국을 휩쓴 6월의 민주화투쟁, 언세대 이한열군 장례식 등에 도시빈민들은 일상을 다해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민주화 약속을 쟁취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어야만 비바지게 임하는 우리도 제대로 대우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애마게 갈망했고 또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대표가 민주화 선언을 한지 한달도 못되어 또 다시 폭력경찰이 판을치고 집거는 계속되고 생존권보장요구를 하는 정의로운 빈민들을 구속시키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민주화가 어디있습니까?

우리들이 부당한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선 집거로 인해 인근 방세가 올라 이사가더라도 빚을 얻지 않는 한 감수가 있습니다. 또 신히 빚을 얻어 이사한다고 해도 거기또한 산동내 재개발지역임 것이고 금방 집거가 닥칩니다. 집거때문에 방세는 자꾸만 오르고 빚은 빚이 월세돈 바치다보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화동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우리나라가 더 잡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 가옥주들은 집이고 빚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빚은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화라면 진정 국민의 생존권을 고귀하게 여기고 합당한 주거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구를 쟁취하면 민주화는 더 싹속있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도시빈민들이 살 수 있는 10평미만의 임대주택은 지어 20년 상환으로 싸게 분양

하면 실제적인 주거안정 기어하지만, 부자들이나 호화 맨션만 자꾸 지으면 우리는 점점 갈곳이 없어지고 방세부담만 자꾸 커져서 영영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서울시에만해도 집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우리같은 처지의 철거민이 100만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세입자 어러본!

본인이 일어나 뭉치 싸웁시다. 도화동에는 이미 세입자대책위원회(713-6645)가 있는데 서울시에 이런 자발적인 주민단체가 20여개나 됩니다. 모두 세입자대책위원회에 가입하여 힘을 합칩시다. 그러지 않고 불구경하고만 있을때 결과는 내쫓기는 것뿐이며 다른데 가서도 내쫓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자리에서 근본적인 생존대책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땀땀이 그것을 요구하고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가옥주 어러본!

심젠 도화동에 사시는 분들중 과연 몇분이 이곳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임주권 팔고 나가면 어러본들중 많은 분은 필경 전세집을 전전하는 세입자가되어 집만있고 말 것입니다. 무기권, 권설죄사만 든버는 재개발에 반대하고 세입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으로 설게 변경될때까지 뭉치 싸워야 합니다. 세입자들의 요구를 지지해주고 이용조합을 배귀하십시오. 민주사회에서 부당하게 집임게되다니 이게 왜 말입니까?

도화 3공구 주민어러본!

억울하게 구속된 세입자 5명을 구출해내고 빈민생존권 쟁취하여 민주사회 이루 합시다.

1987. 7. 21

- 민주와 생존권을 쟁취하고자하는 도시빈민 -

- \* 도화동 빈민투사들을 주권 수방하라!
- \*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분양하라!  
가옥주의 재산권을 존중하라!
- 세입자에게 장기저리 임대주택을!
- \* 김근태는 현행 재개발조합을 해체하고 주권 물러나라!
- \* 지금 즉시 세입자대책위원회(713 - 6645)에 전화해서 동참하시라.



철거반대 투쟁으로 구속된 세입자 5명의 즉각 석방을 위한

# 도화동 세입자의 입장

7월 3일 도화동 3공구 재개발 조합장 김근태는 세대위 인근에 있는 10명의 세입자를 서울 민사 법원에 고소하였다. 이는 도화동 세입자 주민들을 깔보고 세대위를 중심으로 한 세입자들을 허울좋은 법적 조치로 탄압하여 우리 보금자리를 빼앗으려 계획한 것이다. 고소당한 세입자와 세대위 주민들은 7월 8일, 12일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물러가 그들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며 재개발 조합 프랭카드를 떼내었다. 우리들의 이런 정당한 항의에도 김근태를 위시한 재개발 조합은 개경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10여명의 세입자 주민들은 현장사무실에 물러가 기물을 파괴하였고 마침내 도화2동 사무소에 내려가 항의하다.

폭력경찰에 의해 8명이 전원 연행되었다. 재개발 어용조합은 파괴된 기물이 16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4000여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고 재개발 철거반원이 어깨에 파스를 붙이며 구타당했다고 거짓말하며 5명(박종길, 김종석, 이종근, 김한익, 김승씨)을 고소 구속하였다.

세입자들을 무시한 몰지각한 강제철거 그리고 7월 3일 고소당한 일, 13일 구속된 것, 이 모두가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억신여기며 억압하는 돈 많은 자들과 현 독재정권이 짜고 자행된 일임을 우리 도화동 세입자들은 알고 있다.

6월 10일 박종철 사건 국민대회부터 7월 9일 이관열군 장례식의 행렬에까지 이르는 민주화의 물결에 도시민으로서 도화동 주민들도 적극 동참하여 '빈민 생존권 압살하는 강제 철거 즉각 중단하라'고 힘껏 외쳤다. 국민들의 이런 거센 힘에 놀라 노태우씨는 6.29일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어떠한가? 제 5공화국 독재정권이 들어설때 전두환과 어깨를 같이한 노태우가 허울좋은 민주화선언을 떠벌이고 있는 시각에도 포크레인온 우리 도화동 보금자리를 전철터같은 폐허로 만들고 있었다. 도대체 민주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면 적어도 집없는 사람은 자그나마 자기 집을 가질수 있고 돈 없고 뻘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자식을 울비로 키우며 건강하게 살 수있는 생활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도화동 마을은 일감을 구하여 적은 생활비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정든 우리의 살터이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당장 이사비용, 자식교육 등의 문제가 닥친다. 다른 곳에 옮겨 갈려해도 집값, 보증금이 엄청나게 뛰어들어 올라 지금 보증금과 이주비로는 방울 얻기 힘들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살 수 있는 지역은 머지않아 철거될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정든 도화동 마을뿐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보금자리인 것이다.

우리들이 힘을 뭉쳐 정당한 요구를 위해 싸운다면 무엇이든지 쟁취할 수 있다. 6.10일 이후 우리국민이 힘을 모아 한껏 싸워,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직선제를 쟁취하였다. 또 목동등 재개발지역에서도 빈민형제들이 강철같이 단결하여 큰 성과를 얻어내었다. 도화동 세입자주민도 세대위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싸워나갈 때 우리 모두는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속된 빈민형제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도화동 세입자의 생존권을 위해 앞장서서 싸웠다. 우리는 형제들의 앞서신 뜻을 알고 그분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1, 2공구 세입자 여러분도 불구경만 할 때가 아니라, 3공구 주민들과 힘을 합쳐 본연히 펼쳐 일어셔야 한다. 3공구 세대위는 전 세입자 주민의 뜻을 모아 우리 도화동 세입자의 기본적인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것이다.

☒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힘껏 외칩시다 ☒

- 1. 죄없는 도화동 빈민 구속자 즉각 석방하라!
- 1. 강제 철거 즉각 중단하라!
- 1. 도시 빈민 생존권 보장하라!

1987. 7. 23.

## 도 화 동 세 입 자 일 동

강제 철거와 빈민형제 구속에 관해 서로 의논하고 세대위의 활동에 적극 동참합니다.

제 3공구 세대위 사무실 전화번호 713-6645

#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야? 눈을 떠 보자!

언제 철거가 되나 하고 하하하하 마음처럼 날아가는 세입자 여러분! 재개발 공로 난 후 집 값이 투기꾼들의 간악에 의해 모시기 시작하자 집을 팔아 버리고 저들은 전셋방 섬세로 귀찮은. 전매 세입자 여러분! 피와 땀은 쏟아 마련한 훌륭한 집을 무작정 평수로 쳐서 거저 먹어 버리려는 함동 재개발 당국에 분노감을 받지 못하는 가문주 여러분! 지금 주민들이 자세한 내역은 알지도 못하게 반 비역리에 추궁중인 재 개발은 진정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을 믿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재 개발 지역의 집들은 70% 이상이 투기꾼들의 손에 그리고 건설 회사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 살지 않습니다. 동네에는 가문주 없이 세입자들만 사는 집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 투기꾼들은 우리 삶의 보금자리를 부쳐 버리고 배가빈짝한 고급 아파트는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남겨 먹으려는 우나나 경쟁의 기생충들입니다.

불명 형재 도화동에 사는 분들중에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 사실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관비, 문화 수련의 격차, 직업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면 5000여 세대의 주민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모두 안고 있듯이 이 지역에서 철거되어 쫓겨 납니다. 철거되면 입근 방값이 오릅니다. 저금 가진 돈으로 저금 보다 더 작고 더러운 방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이 샴시세로 갈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애가 땅된 집은 방도 구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주민 여러분! 눈을 뜨고 편지를 적어주세요. 평안롭게 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걱정은 여쭙고 있어 재개발 투기꾼들을 위해, 그리고 잠시 왔다 가는 외국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번지는 재개발이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엄청난 실정이 두 번 집이나 되는데 그 현동 소리가 당국에 들리지도 않단 말입니까? 이 사회의 주인들인 우리, 서울 시민인 우리, 하루종일 땀 흘리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 버려진 돈은 참으며 일 해온 우리, 열심히 일해 자립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려는 재개발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목동, 신성동, 사당등 주민들은 이 억울한 첩해에 대하여 당국에 항의해 왔습니다. 특히 모갈에 없는 세입자 아구어네들의 눈물겨운 호소는 신윤지상은 통해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986. 5.

## — 우리의 요구 —

- ▶ 도시 빈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재개발 정책은 즉각 수정하라!
- ▶ 세입자 대책 없는 삼면 철거 반대한다!
- ▶ 좁은 집을 때려 부수는 낭비, 존속 행정 시정하라!
- ▶ 단지 명적에 따르는 현상 방법 수정하라!

\* 이권에 공감하신다면 주위 사람과 돌려 읽고 대책을 논의해 봅시다. 적극 공감하신다면 한분이 다섯부씩 복사해서 다른 주민들에게 널리 배포 합시다.

### 9. 서초동 비닐하우스촌

#### 1) 지역 개요

##### ○ 군부대앞 자치회 형성 배경

서초동 비닐하우스촌은 1986년부터 사당3동, 철산리 등의 철거민들과 주거비 양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촌으로 모여들게 되면서 형성되었다. 그 후 다시 철거 위협에 놓이게 되자 이를 대비한 주민자치조직이 결성되었다. 1988년 7월부터 서초동내 군부대앞, 청사, 법원지역이 조직구성을 시작('군부대자치회', '청사앞자치회', '법원단지자치회') 하여 1988년 8월25일에 군부대앞 자치위원회 현판식과 마을 대동제 개최, 1988년 8월말부터는 서초동 비닐하우스지역 회장단회의가 정례화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강제철거의 명분이 되는 투기행위 근절, 주거근본대책인 영구임대주택쟁취 및 지상건물에 대해 보상실현을 위한 연대활동, 주소나 전기 등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후 1990년대 객골, 정보사의 철거와 1992년 청사법원단지 철거 등으로 1993년 현재 서초동에는 1988년 당시 4-5천세대의 비닐하우스촌이 일부 철거되어 천여세대의 비닐하우스촌이 정보사앞(군부대), 대아예식장뒤(대아), 대웅제약뒤(대웅), 롯데빌리지 뒷편(달동네), 서울고 뒷편 및 동신아파트, 아시아 자동차 뒷편으로 산재되어 서초3동에만도 천여세대가 남아있다.

##### ○ 요구: 영구임대주택 보장(영구임대주택 보장없이 개별 철거 불허)

"기존의 비닐하우스 철거방식이 개별지주 대 개별비닐하우스 주민의 차원에서 몇푼의 이주대책비로 해결돼 왔는데, 이 과정에서 개별지주와의 물리적 충돌이 야기되고 이주대책비도 현실적이지 못하기에 또다른 비닐하우스촌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다. 또한 계속되는 대형화재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므로 비닐하우스촌의 문제는 더 이상 개별지주와 개별비닐하우스 주민의 협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정부의 복지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기원협 수신의 「제안서(1993.4.12)」, 「취재협조요청서(1993.4.15)」, 「건의서(1993.4.6)」 중에서)

○ 한편, 91년(?)에 발간된 지역신문 「꽃동네사람들」(제5호)의 기사를 보면 '꽃마을 빈방, 자가용 여전'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투기꾼들이 마을내 잔존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주민 자치회 차원에서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대책과 대응을 마련하기도 했다(군부대앞 자치회 명의로 '경고장' 참고).

#### 2) 일지

##### 1988년

- .8.1 : 도시빈민 공동투쟁위 결성식 및 노점단속 강제철거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참석.
- .8.3 : 서초동 대아지역 9가구 철거.
- .8.4 : 양재동 주민과 함께 300여명 서초구청 항의농성.
- .8.5 : 대아지역 복구한 철거가옥 재철거. 대책없는 강제철거 항의를 위한 교대앞 사거리 5시간 점거. 대아지역 비닐하우스촌 자치회 결성
- .8.29 : 서초동 법원단지 현판 철거 및 청사앞 강제철거 주민 200여명 서초3동 동사무소앞 농성 전개.
- .9.6 : 서초동 법원단지 현판식.
- .9.10 : 주소 이전, 수도 문제 등 생활상의 문제 건의에 대한 내무부의 불성실한 답변에 항의하여 교대앞 사거리에서 시위를 전개.
- .10.9 : 청사앞 이명박 소유의 땅에 439가구 비닐하우스 화재. 도곡동 88경비대 콘센트막사로 이주하게 됨.
- .10.16 : 서초동 군부대앞에서 달동네 강제철거저지 결의 및 주민 단합대회 개최.
- .10.18 : 원상복구 및 대책요구 서초구청 항의농성.
- .11.16-17 여의도와 시청투쟁.
- .12.3 : 서초동 달동네 주민 200여명 강남구청 농성지원.

##### 1989년

- .2월 : 돈암동 정상을 열사 장례식 참여.
- .5 : 지역내에서 도시빈민 대중지도자 연석간담회 개최.
- .6 : 아시아 빈민대표와 2박3일간 도시빈민문제, 철거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 .8 : 서초구청앞에서 영구임대쟁취 및 영구임대보장없이 강제철거한 서초동 비닐하우스촌 항의집회를 서초구청앞에서 2박3일간 철야로 전개.

1990년

8월말 : 객골 정보사앞 비닐하우스지역 800여세대 강제철거에 대한 지원. 주거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에서 처음으로 무허가로 인정하면서 시유지 비닐하우스촌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철거대책으로 제시함.

1992년 : 신정동, 청량리, 영천 등지에 대한 지원투쟁과 서초동의 청사, 법원단지 지원투쟁을 함. 또한 마을내에서는 '생존권 쟁취를 위한 마을대동제'를 11월5일 개최하여 주민의 단합과 도시빈민의 연대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음.

1993년 : 꽃마을 불령장 센타와 싸움을 전개.

3) 관련 자료

- 진정서, 1987.4 : 서초동 거주 12가구에 갑작스럽게 지주임을 자처하며 나선 사람이 가진 철거를 강요하며 협박을 하고 가자 이에 진정하는 내용의 글.
  - 서초동 천막촌 설문조사 보고서, 1988.8.10-12.
  - 서울시철거민협의회, 10월14일 서울시 철거민 협의회 임시 회장단회의, 1988.10.14.
  - '서초동 화재, 그 문제의 현장', 『자유언론』, 88.12.1.
  - '불내고 부채질한 이부터 가려내야죠', 『생활성서』, 88.12월호.
  - 서초동 객골 정보사 지역에 대한 상황 보고서, 1990.9.2.
  - 서초3동 객골 정보사 철거민 학부모 일동, '선생님께', 1990.9.2 : 잇달아 닦쳐오는 강제철거로 인해 아이들의 학교 등교와 수업준비가 부실함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께 이해를 구하는 자필 서신.
  - 서강대 애드리랑, 버팀돌 '서초동에 이르기까지...', 1993.5.17.
  - 오숙민, '바리케이드로 지키는 마지막 삶의 자리', 『함께걸음』, 1993.6월호.
  - 김석수, '비닐하우스촌에서도 살 수 없는 사람들'.
- 유인물 및 기타
- 천막촌(호외1), 1988.8.5.

- '서초동 「꽃마을」에 큰불', 중앙일보, 1988.10.10.
- 서울시철거민협의회, 삶의 소리(호외), 1988.10.12.
- '꽃동네 이재민 생계대책 「막막」', 「꽃동네」 화재 무책이 상책인가, 기독교연합신문, 1988.10.23.
- '빈자-부자틈에서 "갈팡질팡"', 중앙일보, 88.10.29.
- 달동네자치위원회, 우리는 왜 구청에 들어왔는가?, 1988.12.8.
- 청사앞자치위원회, 꽃마을메아리(제1호/1989.3.14, 제2호/1989.3.23, 제3호/1989.4.14)
- 청사앞자치위원회, 검찰청사앞소식(제4호), 1989.5.6.
- 서초동 객골자치회, 긴급 속보 '아아 잇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1990.8.28.
- 서초동 꽃마을철거민일동, "서울시의 기만술책 철거민은 죽어간다", 1990.9.4.
- 천주교도시빈민회·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先이주대책없이 강제철거 없다!, 1990.9.6.
- 서초3동 1517번지 주민일동, 호소문 '하늘이 무너지고...', 1991.8.15.
- 꽃동네 놀이방, 꽃동네 아이들(제3호/1988.12, 제6호/1992).
- 서초동 꽃마을 군부대앞자치위원회, 생존권 쟁취를 위한 마을대동제, 1992.11.1.
- 군부대앞자치회, 꽃동네소식(제6호/1990.2.8, 제14호/1992.5.17, 제15호/1992.10.1, 제20호/1993.9.7).
- 서초동 꽃마을 군부대앞 자치위원회, 서초동 비닐하우스촌 영구임대아파트 선입주를 위한 전진대회, 1993.4.17.

# 「꽃마을」대표감독被襲

9. 19  
동아

### 강제철거 반대 주도地主側 兇手 폭력 추정

○ 1987년 9월 19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길에 위치한 '꽃마을' 대표감독인 김대중(58)씨가 폭력적으로 공격당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8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길에 위치한 '꽃마을' 대표감독인 김대중(58)씨가 폭력적으로 공격당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8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길에 위치한 '꽃마을' 대표감독인 김대중(58)씨가 폭력적으로 공격당했다.

# 영남을 순회한 분쟁이념마감

○ 영남을 순회한 분쟁이념마감. 영남을 순회한 분쟁이념마감. 영남을 순회한 분쟁이념마감.

영남을 순회한 분쟁이념마감. 영남을 순회한 분쟁이념마감. 영남을 순회한 분쟁이념마감.

투기꾼들 1천여가구 보상서 제의  
2만 6천평에 필자담양 블록개발

투기꾼들 1천여가구 보상서 제의. 2만 6천평에 필자담양 블록개발.

투기꾼들 1천여가구 보상서 제의. 2만 6천평에 필자담양 블록개발.

투기꾼들 1천여가구 보상서 제의. 2만 6천평에 필자담양 블록개발.

투기꾼들 1천여가구 보상서 제의. 2만 6천평에 필자담양 블록개발.

투기꾼들 1천여가구 보상서 제의. 2만 6천평에 필자담양 블록개발.



도개마을 화재로 인한 피해. 도개마을 화재로 인한 피해. 도개마을 화재로 인한 피해.

# 도개마을 : 放火나 失火냐

## 불탄마을을 둘러싼 이념화재

영남을 순회한 분쟁이념마감. 영남을 순회한 분쟁이념마감. 영남을 순회한 분쟁이념마감.

도개마을 화재로 인한 피해. 도개마을 화재로 인한 피해. 도개마을 화재로 인한 피해.

도개마을 화재로 인한 피해. 도개마을 화재로 인한 피해. 도개마을 화재로 인한 피해.

# 서울市 私有地 이유소수법판

서울시 10여년 동안 대표적 철거 대상지였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단지 앞 속칭 '꽃마을'이 24일 전면 철거됐다. 서울 서초구청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전경 24개 중대 2천8백여명의 지원을 받아 철거반원 1천 2백여명, 포클레인 6대, 운반차량 50대 등의 장비를 투입해 산산조각난 1707㎡의 1만3천여평에 산재한 무허가 가건물촌 3백11개동 2천3백21가구를 10여시간만에 모



서울시 10여년 동안 대표적 철거 대상지였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단지 앞 속칭 '꽃마을'이 24일 전면 철거됐다. 서울 서초구청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전경 24개 중대 2천8백여명의 지원을 받아 철거반원 1천 2백여명, 포클레인 6대, 운반차량 50대 등의 장비를 투입해 산산조각난 1707㎡의 1만3천여평에 산재한 무허가 가건물촌 3백11개동 2천3백21가구를 10여시간만에 모

## 세금만 매길것 아니라 權利 보호를 地主 이주비-土地보상 관철안되면 不可 주민

서울시 10여년 동안 대표적 철거 대상지였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단지 앞 속칭 '꽃마을'이 24일 전면 철거됐다. 서울 서초구청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전경 24개 중대 2천8백여명의 지원을 받아 철거반원 1천 2백여명, 포클레인 6대, 운반차량 50대 등의 장비를 투입해 산산조각난 1707㎡의 1만3천여평에 산재한 무허가 가건물촌 3백11개동 2천3백21가구를 10여시간만에 모

【서울 10/31】 서울시는 10여년 동안 대표적 철거 대상지였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단지 앞 속칭 '꽃마을'이 24일 전면 철거됐다. 서울 서초구청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전경 24개 중대 2천8백여명의 지원을 받아 철거반원 1천 2백여명, 포클레인 6대, 운반차량 50대 등의 장비를 투입해 산산조각난 1707㎡의 1만3천여평에 산재한 무허가 가건물촌 3백11개동 2천3백21가구를 10여시간만에 모

【서울 10/31】 서울시는 10여년 동안 대표적 철거 대상지였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단지 앞 속칭 '꽃마을'이 24일 전면 철거됐다. 서울 서초구청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전경 24개 중대 2천8백여명의 지원을 받아 철거반원 1천 2백여명, 포클레인 6대, 운반차량 50대 등의 장비를 투입해 산산조각난 1707㎡의 1만3천여평에 산재한 무허가 가건물촌 3백11개동 2천3백21가구를 10여시간만에 모

【서울 10/31】 서울시는 10여년 동안 대표적 철거 대상지였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단지 앞 속칭 '꽃마을'이 24일 전면 철거됐다. 서울 서초구청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전경 24개 중대 2천8백여명의 지원을 받아 철거반원 1천 2백여명, 포클레인 6대, 운반차량 50대 등의 장비를 투입해 산산조각난 1707㎡의 1만3천여평에 산재한 무허가 가건물촌 3백11개동 2천3백21가구를 10여시간만에 모



태풍속 철거함의 강제철거 현장에서 한 주민이 비를 맞으며 철거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유창하 기자>

# 서초 '꽃마을' 강제철거

2천3백가구 항의주민 30여명 경찰 연행

지난 10여년 동안 대표적 철거 대상지였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단지 앞 속칭 '꽃마을'이 24일 전면 철거됐다. 서울 서초구청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전경 24개 중대 2천8백여명의 지원을 받아 철거반원 1천 2백여명, 포클레인 6대, 운반차량 50대 등의 장비를 투입해 산산조각난 1707㎡의 1만3천여평에 산재한 무허가 가건물촌 3백11개동 2천3백21가구를 10여시간만에 모